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5090-33246-44-98008

공군

www.airforce.mil.kr



2004. 6 / 제312호

특별기획 / 1950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활약한 F-51D 무스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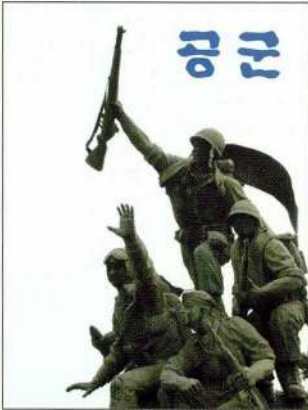
현장탐방 / 제4회 공군참모총장배 컴퓨터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Zoom In / 공군 정보체계 보호팀 「CERT」

공군

제312호 | 2004. 6

Contents



현충원 상징 조형물



현장탐방 -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 대



Zoom In - 공군 CERT

공군지 독자 여러분의 주소 변경시에는 변경된 주소를 02)506-6236으로 알려주십시오. 본지의 내용은 공군인 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3 지 휘 봉
- 4 공군은 지금
- 생각해 봅시다**
- 8 역사인식과 현충
-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 11 1950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활약한 F-51D 무스타
- 특집화보**
- 16 참모총장 해외 3개국 순방
- 공군소식**
- 20 공군 군악대의 울릉도 트위스트
- 현장탐방**
- 24 제4회 공군참모총장배 컴퓨터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 Zoom In**
- 27 컴 안에 戰場이 있다! - 「공군 CERT」
- 항공우주군**
- 30 세계의 항공무기/헬멧장착 전방시현기(HMD)
- 32 세계의 우주력/유럽의 공동 우주개발
- 문화나들이**
- 34 테마가 있는 나들이 / 현충원과 전쟁기념관
- 38 그림이야기 / 나라에서 준 돈이기에
- 46 동아리 마당 / 제3훈련비행단 영상제작동아리 「Nemo」
- 50 마음으로 읽는 글 / 우산을 찾아드립니다
- 52 영화이야기 / 효자동 이발사
- 62 보라매 단상



참모총장 공군대장 이 한 호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 당부

『이라크 전쟁』 終戰 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무차별적인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4월 발생한 『용천』 폭발참사의 피해복구를 위해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장성급 회담을 수용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나, 군사적으로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어 북한의 핵, 탄도탄 등 대량살상무기와 기습 공격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된 재래식 전력은 엄청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안보상황하에서 공군 전 장병은 확고한 안보관과 대적관으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으며,

또한, 시대적 사명인 『선진 정예 공군』을 반드시 이룩해 낼 수 있도록 『엄정한 기강 확립』과 『교육훈련체계의 혁신』을 비롯한 공군 개혁과제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04-1차 고등비행 수료식에서〉



제26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가 5월 23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2 5월 14일, 제16전투 비행단에서 거행된 '04-1차 고등비행 수료식에서 이한호 참모총장이 신임 조종사들에게 빨간 마후라를 수여하고 있다.



3 공군본부는 이한호 참모총장이 주관한 가운데 장군 및 대령 전역행사를 가졌다.



4 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에서는 항공기 5천대·기관 1만대 참 정비 출고 기념식을 가졌다.

5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18전투비행단 205전투비행대대



6 대구기지 소속 장병 50여 명은 5월 2일, 『대구 해안동 어르신 한미당 큰잔치』에 참석, 군악연주, 다과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7 5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2004년도 공군참모총장배 태권도 대회가 제15혼성비행단에서 열렸다.



8 제91기지건설전대는 미 공군 554레드호스대대와 공동으로 한·미 연합 피해복구훈련을 실시, 전시 비행장 피해복구 및 작전기지 개설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9 제3훈련비행단은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인근 고아원생 100여 명을 초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 5월 8일 어버이 날을 맞아 제10전투비행단에서 실시한 부모 초청행사

11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부대인근 북일초등학교에 일일교사로 나선 제17전투비행단 조종사





역사인식과 현충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박 종 권



6월은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先烈)과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 정부는 1956년 애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6월 6일을 현충일(顯忠日)로 지정하고 매년 그 분들의 높고 거룩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있다.

역사의식이 곧 국가 흥망성쇠의 열쇠

영국의 철학자요 사회학자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역사의식(歷史意識)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조망해 갈 때 그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새삼 이 말을 떠올리는 것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올바른 역사의식을 통한 국가관(國家觀)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져보기 위해서이다.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사회구성원들의 사고(思考)에 역동적이고



건강한 시대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더라도 이를 능히 막아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역사의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결여되었을 때는 외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망국으로 이어진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뼈아픈 역사 속에 발현한 민족혼

우리의 근대 100년의 뼈아픈 역사 또한 그런 사례의 하나이다. 우리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접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관계로 대륙세력이 강할 때는 육지에서 바다로, 해양세력이 강할 때는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하려는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력이동의 발판이요 이동축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에 있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역사적 격랑(激浪)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 우리의 역량을 키워 단일민족 국가로 5천년의 역사를 이어 왔지만 구한말(舊韓末) 선조(先祖)들은 세계사적 조류(潮流)를 도외시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방황하다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역사를 안아야 했다. 그러나 면면히 흐르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文化民族)의 저력은 끊이지 않았으며, 우리의 민족혼(民族魂)은 수많은 선각자와 애국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져 끝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자력(自力)으로 되찾은 나라가 아니었기에 해방된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6·25라는 민족사의 가장 참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그 후로도 많은 사회

적 갈등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와 인내, 애국·애족의 정신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그 결과 숭한 목숨과 피의 대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세계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경제성장을 단시일 내에 이루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자리하였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국제무대에서 인류애를 실현하는 여러 활동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정치·문화·스포츠행사를 개최하면서 인류의 공존과 번영, 평화증진을 위한 국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이러한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까지는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한 순국·애국열사와 자유수호(自由守護)를 위해 희생·헌신하여 지금도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많은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역사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정신적 용기와 애국심으로 무장한 사람들, 적극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을 이끌어가고 사회발전을 이루어 간다. 보훈가족과 보훈대상자, 그들을 우리는 국가유공자라 하며 그들이 바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보훈의

예우를 다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조망하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민족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조선시대 말 우리의 쇠국정책(鎖國政策)으로 인해 조선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결국 쇠락(衰落)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역시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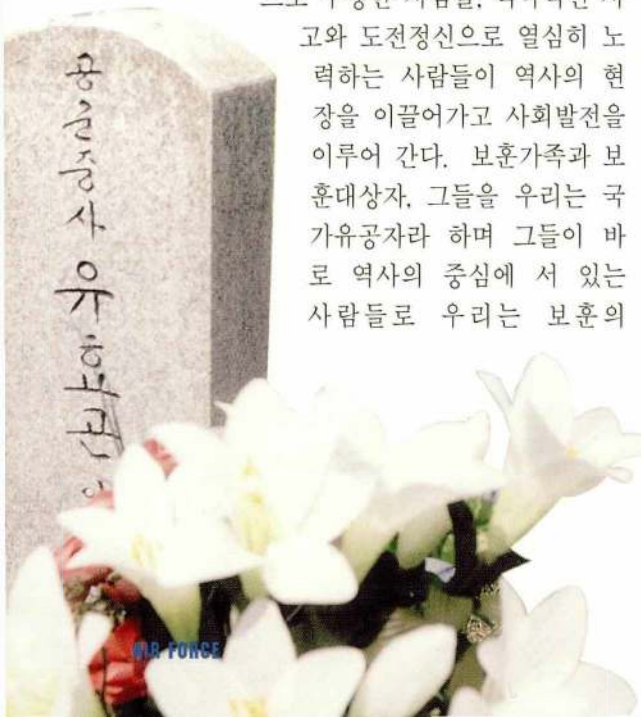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국가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제적 무한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세계화로 가는 길에 닫힌 사고로 안주한다면 경제변영도 이룰 수 없고 국가안보도 위협받게 되며 통일주도도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개방화에 적극적이고 열린 사고로 대처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는 제2의 경제도약(經濟跳躍)을 이루고 분단 국가로서 민족통일(民族統一)의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조망하자. 애국심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자.

역사(歷史)가 있는 곳에 국가(國家)가 있고, 국가가 있는 곳에 보훈(報勳)이 있음을 인식케 하고 새로운 보훈문화(報勳文化)를 열어가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산화한 영령의 영전에 꽃 한 송이 헌화하는 마음과, 상흔(傷痕)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과 그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자. 그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고귀한 가치가 더해 갈 때만이 융성한 조국의 미래가 약속되리라 생각한다. ⊕



1950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활약한

F-51D 무스탕

F-51D 무스탕(Mustang)

1939년, 영국 공군의 의뢰로 North American社에서 제작된 전투기로, 처음에는 미 육군항공단의 식별 체계 부여에 의해 P(persuiter : 추적자)-51로 불렸다. 1950년, 미 공군소속으로 전환된 뒤 F(Fighter : 전투기)-51D로 개명된다. 긴 항속거리와 강력한 무장으로 장거리 폭격기의 호위역으로 많이 쓰였으며, 총 15,686대가 생산되었다.

구분	제원	구분	성능
폭	37ft 0.5in	길이	32ft 9.5in
높이	13ft 8in	중량	12,100lbs
무장	기총 6x12.7mm, 폭탄 2x1,000lb, 로켓 6x5in	엔진 (추력)	Packard Merlin V-1650-7, V-12 엔진/1,695hp
속도	437마일/시간	제작사	North American
항속거리	1,300(NM)	최대상승고도	41,900(ft)



한국공군의 탄생과 한국전쟁

우리 공군은 1920년 1월 20일, 노백린 장군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윌로우즈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면서 태동하였다. 이후 1945년,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하에 국방경비대를 창설, 군사력을 정비하기 시작한다. 1948년 4월 1일에는 최용덕 장군을 비롯한 7인의 간부들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육군소위로 임관, 육군 산하의 항공부대를 결성하였고, 1948년 9월 13일 미 7사단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12월 23일 L-5 연락기 10대를 각각 인수하여 영공 방위의 임무에 나서게 된다.

우리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 254호 『공군본부 직제』에 의거 육군으로부터

독립,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영공 방위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50년 5월, 국민의 성금을 모아 캐나다로부터 T-6 건국기 10대를 도입한 우리 공군은 6·25 전쟁 전까지 총 병력 1,897명, 항공기 2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운명의 '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규모 남침이 시작되자 한국공군은 적은 병력으로나마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당일 오후 6시, 10대의 T-6 항공기가 각각 국산 폭탄(15kg) 8~10개와 수류탄을 싣고 날아올라 후방석 관측사가 폭탄을 손으로 떨어뜨리다가 적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한국공군의 공격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274발의 폭탄이 모두 소모된 6월 27일까지 계속되었다.

바우트 원(Bout one) 프로젝트와 무스탕의 등장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자 주일미군 사령부는 즉시 작전 가능한 미공군기들을 출동시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이전부터 요청해오던 전투기의 원조요구를 드디어 받아들일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미 공군에 의해서 『바우트 원』(한판승부)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전쟁이 시작된 지 하루만인 6월 26일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이 명령에 따라 미공군측은 2차 세계 대전 중 최고의 프롭 전투기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는 F-51D 무스탕 전폭기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일부 퇴역되었던 기체를 정비하고 주 방위군으로 공여된 기체를 모아 실험해본 결과 미 공군은 이 기체가 한국전장에 적합한 기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스탕은 항속거리가 길었으며 상대가 좋지 않은 남한의 비행장에서도 작전이 가능할 만큼 역세고 튼튼했고, 지상공격을 위한 무장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었다. 더구나 북한군이 보유한 야크 전투기는 무스탕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미군 조종사들이 이 기종으로 비행을 충분히 경험했었기 때문에 다시 기종 전환 교육이 필요 없었다.

한편 미군은 한국군에 단발 프로펠러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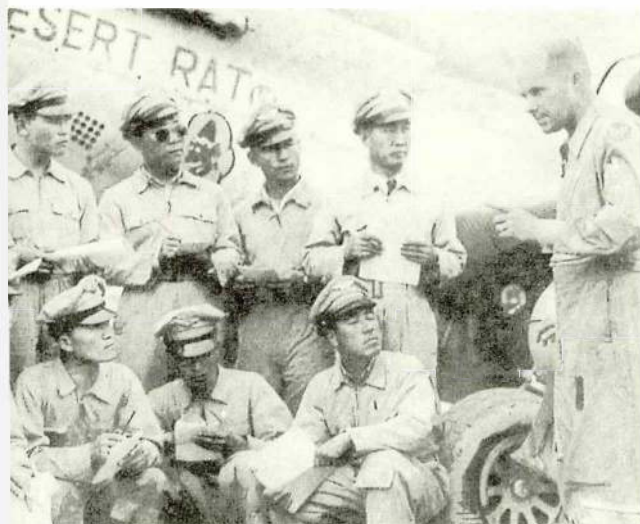
기를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 10명을 일본으로 보내라고 요청하였고 김정렬 참모총장은 즉시 T-6 진국기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최고 조종사들인 이근석 대령과 김영환 중령을 비롯한 10인의 조종사들을 선발하여 6월 27일 일본의 이타쓰케 기지로 파견해서 미 공군의 지휘하에 기종전환 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 모두가 불과 2일만에 추진될 정도로 당시의 전세는 급박했다.

6월 29일에는 미국의 맥아더 원수가 전황을 시찰하기 위해 수원 비행장으로 들어왔다. 이때 맥아더 원수를 호위하기 위하여 4대의 무스탕기가 처음으로 한국 상공에 나타났으며 때마침 이날 수원 비행장 상공에 나타난 북한의 야크 전투기를 격추시킴으로써 무스탕의 한국전 첫 Kill(적기 격추)이 이루어지게 된다.

신념의 조인

한국공군에 공여된 10기의 무스탕 중 18번을 달고 있는 바우트 원 대대장 딘 헤스 소령의 전용기에는 유명한 『신념의 조인(信念의 鳥人)』이라는 노즈아트가 그려져 있었다. 딘 헤스 대령의 자서전인 『Battle hymn』에 의하면 이 문구의 의미는 『신념으로 하늘을 난다(By faith, I fly)』라고 풀이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촬영된 한국공군 F-51D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18번 기체 이외에 다른 기체에는 이 『信念의 鳥人』이 기입된 사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딘 헤스 소령의 전용기체에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공군은 한국공군 조종사들의 훈련을 맡고 한국공군을 양성하기 위해 제6146 군사고문단을 창설했으며 한국공군 훈련부대는 작전명을 따서 『바우트 원 대대(Bout one squadron)』라고 불리게 되었다(후일 한국에서는 백구대대라고 불린다). '50년 6월 27일 창설된 이 바우트 원 대대는 일본의 이타쓰케 기지에서 기종전환 훈련을 받던 도중 급박해진 전쟁 상황에 의해 7월 2일 대구비행



장으로 귀국. 다음날인 7월 3일에 미 24사단을 근접 항공 지원하는 첫 출격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숙련되지 않은 한국 조종사들은 별다른 전과를 세우지 못하였고, 심지어 7월 4일에는 한국 조종사들 중 최고의 비행기술을 가졌다는 이근석 대령이 대공포화에 피격되어 전사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딘 헤스 소령은 이대로라면 며칠 이내에 바우트 원 대대가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절대로 미군 교관 조종사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스스로 전선 상공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 조종사들과 함께 출격하기 시작했다.

한국공군의 은인, 딘 헤스 소령

한국공군에 무스탕 조종기술을 전수해 주고, 위험한 임무에 나서는 한국조종사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남들이 꺼리는 한국조종사들과의 혼성출격도 주저하지 않아 무려 250회 이상의 혼성 출격에 나섰으며, 1951년의 1·4후퇴 때는 전쟁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이동시키는 일까지 도맡았던 미군 조종사.

미국이 『바우트 원 대대』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한국공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심지어 자유로이 전속을 해도 좋다는 명령이 난 후에도 끝까지 대대에 남아 한국공군의 산파 역할을 자처한 딘 헤스 소령. 그 동안 이런 그의 업적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었지만 그야말로 한국공군의 현재가 있게 해준 은인임에 틀림없다.

며칠 뒤 필리핀과 일본의 미군부대에서 급히 정비를 받은 10여 기의 F-51D 전폭기들이 24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로 날아왔다. 그리하여 바우트 원 대대의 한국 조종사들은 미군 소속의 F-51D 전폭기들과 같이 작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조종사들이 최선을 다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7월 20일 북한군에게 함락되고 말았으며, 이 기간 동안 1기의 F-51D가 손실되어 바우트 원 대대에는 F-51D가 8기만 남게 되었다.

한국공군의 비상(飛翔)

1950년 9월 15일,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한·미 해병대가 노도와 같이 인천 해안으로 밀려들었으며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인천 지역의 북한군은 단시간만에 궤멸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은 북한군은 보급선이 끊긴데다가 부산 지역의 미군과 한국군이 공세로 전환하여 밀고 올라오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 3달만에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제는 통일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북에서 철수한 한국공군 제51임시전폭기대대(바우트 원 대대)는 12월 6일 대전 비행장에 자리를 잡았다. 이 무렵 전환에 만족하고 있었던 미 극동 공군 사령부에서는 '한국 육군의 지원은 한국공군이 해야 한다'는 딘 헤스 소령의 의견에 동의하여 한국공군의 양성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때마침 F-80



으로 기종전환을 마친 일선 부대의 F-51D를 한국공군에게 공여하면서 한국공군은 수적으로도 불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급속히 한국공군 양성이 추진되면서 조종사들을 키우기 위한 훈련부대를 창설, 제주 비행장에서 미군 군사고문관과 경험있는 한국공군 조종사들의 지도로 본격적인 비행훈련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한국공군의 힘찬 비상이 시작된 것이다.

제10전투비행전대 창설

독자적인 작전권을 갈망하던 한국공군은 주력부대를 제주도에서 사천으로 이동시켜 조종사 훈련을 계속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F-51D 운용에 필요한 항공관제, 기체의 야전 정비능력을 피나는 훈련과 노력으로 발전시켜나갔다. 그리고 1951년 8월 1일, 한국공군 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미공군 군사고문단이 부대를 방문하여 부대 전체의 역량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한국공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인정하였다. 다급한 전황 속에 와해될 위기에서 있던 한국공군은 불과 1년의 짧은 시간만에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진 독립 공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단독 작전권을 부여받자 한국공군은 신속하게 전투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시작했다. 1951년 8월 5일 사천기지에서 조종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던 제1전투비행단은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F-51D의 조종훈련을 받고 있던 조종사들 중 전투에 투입할 기량이

있다고 평가되는 조종사들과 훈련부대에서 차출이 가능한 F-51D 전투기들을 중심으로 바우트 원 대대 출신의 베테랑 김영환 대령의 지휘하에 제10전투비행전대를 편성했다. 이 무렵 한국공군에는 작전가능한 F-51D가 10기 내외였다.

이후 한국공군은 기종개편에 돌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으로부터 F-51D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기존의 2배에 가까운 총 18기의 무스탕을 운용하게 되었다.

한국공군 무스탕의 활약 -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평양 대폭격, 351고지 전투 지원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1952년 1월, 미국 공군의 항공차단 작전의 일환으로 대동강 유역의 철교들을 폭파하던 도중, 미 공군이 500소티의 임무로도 폭파시키지 못한 「승호리 철교 폭파」 임무를 한국 공군이 맡아 1월 12일, 15일 양일간 단 5소티의 임무만으로 폭파시킨 작전으로, 그간 근접항공지원 작전만을 수행하던 한국공군이 맡았던 최초의 항공차단 작전이었다. 이날의





임무 성공으로 미공군은 한국공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완벽히 인정하게 되었다. 이 작전을 마지막으로 대동강에 있던 10여 개의 철교가 모두 파괴되면서 북한군은 보급물자를 지원받지 못하여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평양 대폭격 작전

1952년 8월 29일, 휴전회담을 앞두고 공세를 준비하던 북한군의 공격 의지를 꺾고자 행해진 항공차단 작전으로, 미국, 영국, 남아공 등의 UN공군과 한국공군이 연합작전을 통해 평양시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이때 한국공군은 무스탕 12기를 이용하여 임무를 부여받은 평양금속공장과 평양곡산공장지구, 그리고 철도조차장과 철도시설장을 공격하여 공장건물 9개소를 파괴하고 10개소에 큰 피해를 입히고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귀환하였다.

351고지 지원 작전

동부전선 상공에서 근접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던 한국공군은 1953년 3월 26일, 다급한 상황에 몰린 동부전선 월비산 351고지의 국군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351고지는 휴전회담 성사 전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이 고지를 차지하는 쪽이 금강산을 차지할 수 있어 남북양측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공략하려던 거점이었다.

351고지 지원 작전에서 한국공군은 전술의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모두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아군의 T-6 항공기가 저공 비행을 통해 적들을 식별하고 목표를 지정하는 전술 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하면 F-51D 전투기가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통해 아군 육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1953년 3월부터 5월말까지 계속된 351고지

지원 작전을 통해 공군은 F-51D전투기 16대를 동원한 지원작전을 통해 적 군용건물 15개를 파괴하고 동굴 2개, 병커 20개를 제거하여 351고지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였다.

한국공군의 종합 전투기록

약 3년의 전쟁기간은 한국공군이 독자적 임무 수행능력을 갖추게 된 기간이기도 하였다. 전쟁 초 1,897명이었던 병력은 전후 11,461명으로 6배 증가하였으며 항공기도 22대에서 198대로 8배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연락기와 훈련기만으로 구성되었던 한국공군에 F-51D무스탕 133대가 도입되면서 한국공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전쟁 기간 중 F-51D는 총 8,495회의 출격을 감행하여 항공차단 작전 5,337회, 근접항공지원 2,656회, 대지공격 258회 공비토벌 등 기타 244회를 기록하여 UN공군 중 2위의 출격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출격을 통해 우리 공군은 건물 1,770개소, 차량 459대, 우마차 53대, 탄약 및 연료 집적소 1,285개소, 필교 및 인도교 124개소, 터널 108개소, 포진지 521개소, 철도 1,014개소 등을 파괴·파손하였고, 적병 889명을 사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 항공기가 전투 중 69대, 훈련 중 48대 등 총 117대(F-51D 68대)가 파괴되었고 조종사 39명이 전사 혹은 순직하였다.

3년간의 한국전쟁 동안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날아오른 F-51D 무스탕, F-51D는 우리 공군이 가진 최초의 전투기이자 한국전쟁 승리의 숨은 공신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숨은 공신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

참모총장 해외 3개국 순방

이한호 참모총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9일 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을 방문, 각국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을 예방하며, 상호 간 군사교류와 우호증진,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순방의 의미와 성과

이번 이슬람권 3개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

군사외교 활동은 먼저 軍 고위급 인사 예방을 통한 방문국과의 군사우호협력관계 증진이 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등 한국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KT-1 및 T-50 국산훈련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구매유도로 방산물자 수출 기반을 조성한 것 또한 이번 해외 순방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5월 1일 ~ 3일



아랍에미리트 공군사령관과 회담 중인 이 총장



아랍에미리트 공군 알 다프라 기지를 순방 중인 이 총장

▶ 말레이시아 공군 MiG-29 전투기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총장

▼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급 인사 예방을 통해 상호 지속적인 군사협력을 다짐했다.



말레이시아
5월 3일 ~ 6일



인도네시아
5월 6일 ~ 9일



▲ 상호 수출한 항공기에 대한 후속 지원 등 다양한 군사 교류를 약속했다.



▲ 인도네시아 의장대를 사열하는 이 총장



정용후 前공군참모총장 별세



공군 발전의 주역, 별세하다

지난 5월 24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공군 발전의 기틀을 확립한 정용후 前공군참모총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고려대 안암병원에 기증될 예정이고, 장례는 27일 공군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故人の 주요 약력

경기도 파주 출신인 정용후 前공군참모총장은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공군사관학교(공사6기)에 진학, 1958년 공군소위로 임관하

였다. 이후 F-86F 조종사로 조국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였고, 미 공군기지 초급지휘관 및 참모과정, 공군대학 고급 지휘관·





참모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였다.

1973년 7월 10일 제10전투비행단 189특수전투비행대대장을 마지막으로 야전 지휘관에서 정책참모로 변신, 이후 공군본부 작전참모부 및 작전사령부 작전부 등에서 근무하며 전문을 넓혔다. '82년 제15전투비행단장에 이어 30방공관제단장, 공군본부 정보참모부장·인사참모부장, 공군교육사령관, 공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89년 6월 5일 제19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했다.

공군 발전에 큰 업적 남기

1990년 9월 8일 퇴역하기 전까지 정용후 총장은 확고한 지휘 철학과 소신 있는 정책 수행으로 대·내외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대한민국 공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국방부 전력증강발전방향 실천위원회 위원, 818군구조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통해 국방 발전에 기여했으며 공군력 증강을 위한 KFP·F-X 사업에도 관여했다.

1989년에는 C-130 수송기를 도입시켜 한국 공군의 전술공수능력 신장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국방부에서 육·해·공군본부 종합 건물을 충청남도 신도안 지역에 건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군본부의 이동계획을 수립, 지금의 계룡대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 3군 합동작전의 효율성과 통합전력 발휘의 극대화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정용후 前공군참모총장은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75년), 대통령 표창('79년), 보국훈장 천수장('83년), 보국훈장 국선장('87년), 보국훈장 통일장('89년) 등 각종 훈·포장을 받았다.

후배 장병들의 애도행렬이 줄을 이어...

27일 치뤄진 정용후 前공군참모총장의 영결식은 공군장으로 거행되었다. 영결식장에는 장의위원장이인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수많은 후배 장병들의 행렬이 줄을 이어, 『先進精銳空軍되자』라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공군 군악대의 울릉도 트윈스트

공군본부 중위 정 연 석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우리나라 유인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울릉도에서는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공군 군악대에서 최초로 마련한 울릉도 군악 순회 연주회가 바로 그것. 공군 군악대는 해마다 공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악 순회 연주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번 울릉도 순회 연주회 역시 처음에는 울릉도의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의 혜택을 접하기 힘든 곳이 바로 울릉도이기에, 공군 장병을 위한 연주회가 아닌 울릉도 전체를 위한 군악 연주회로 그 기획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릉도행

18일 오전 10시경, 70여 명이 넘는 군악대원들은 포항에 집결, 울릉도로 향하는 쾌속정에 몸을 실었다. 약 3시간에 걸친 지루한 항해 속에서, 군악대원들은 그 특유의 끼를 발휘, 승객들에게 즉흥 선상 연주회를 열어 관광객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천부리 해상공연장에서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한 시각이 약 오후

1시, 군악대원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북면 천부리로 걸음을 옮겼다. 도동항에서 천부항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 10분 남짓, 작년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로 울릉도의 해안도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천부리 해상공연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연주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저녁 7시 30분, 드디어 울릉도에서의 첫 군악 연주회가 막을 올렸다.

군악대는 일반 순회 연주회 때, 젊은 장병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연습하여 들려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울릉도 순회 연주회에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위주로 연습하





여 이날 연주회에서 더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모인 관람객들은 어림잡아 약 600여 명 가량, 울릉도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군악 연주회가 처음이었기에 이날 모인 주민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도동 시가행진과 초등학교 밴드체험

둘째 날인 19일, 공군 군악대는 도동에 위치한 울릉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밴드쇼와 2차 연주회가 함께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밴드쇼 공연 전에는 공군 군악대의 도동에서 시가 행진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 도동 시가행진이 시작되자,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은 퍼레이드 행렬 뒤편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뒤를 따랐고,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울릉초등학교로 입성하였다. 군악대는 곧바로 초등학교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밴드쇼를 선보였고, 뒤이어 악기 체험행사도 마련하였다.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서로 악기들을 만지고 붙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처음 붙어보는 악기임에도 놀라운 소질을 보여 군악 대원을 긴장(?)하게 만드는 아이들도 있었다.

도동 연주회

저녁 연주회는 울릉초등학교에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으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근에 있는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실시했다. 장소 변경으로 인해 관람객이 적

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날 천부리 연주회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로 체육관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날 연주회 역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며 성황리에 펼쳐질 수 있었다.

군민의 날 행사

공군 군악대는 천부, 도동 두 차례의 연주회로 이미 울릉도 내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군악대가 울릉도를 떠나는 마지막 날인 20일, 이 날은 울릉군민 체육대회가 울릉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날이었다. 공군 군악대는 개회식 행사지원 및 퍼레이드 시범 공연을 끝으로 준비하였던 울릉도 순회공연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공군 군악대의 2박 3일간 울릉도 연주회는 모두 막을 내렸다. 돌아오는 배는 바람으로 인해 크게 요동쳤지만, 군악 대원들은 그간의 연주회로 쌓인 피로 때문인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잠자는 그들의 표정만큼은 다른 어느 때의 연주회와는 다르게 훨씬 더 밝고 보람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

여름철 습기와와의 전쟁

공군본부 중위 표 승진

고온 다습한 우리나라 여름

우리나라의 우기(雨期)는 장마가 시작하는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으로 하절기와 일치한다. 이 기간 중 연간 강우량의 60% 이상이 내리며, 10일 이상 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우기(하절기)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온다습, 즉,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도 높은 것이다.

집 안의 습기 제거법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습한 부엌과 욕실은 고온다습한 시기에 곰팡이균의 증식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장소이다. 싱크대의 물기를 자주 닦아내고, 욕실 배수구도 안쪽의 물이 끼까지 깨끗이 닦아준다. 평소 건조 식품류와 같이 들어있는 건조제들을 모았다가 옷장에 넣어두는 것도 생활의 지혜이다. 또한, 양념통에 습기가 차서 구멍이 막힐 때는 쌀알 몇 개를 넣어주면 쌀알이 습기를 흡수해 구멍이 막히지 않는다

또한 캐모마일, 스파티 필름, 로즈마리, 담쟁이 등 습기를 좋아하는 화분들을 욕실이나 창가 옆에 두면 주변 습기 제거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실내 공기 또한 맑게 정화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참고하자.

자동차도 습기에서 보호하자

침수지역을 통과했거나 장기간 빗속을 달린 차량도 곳곳에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다. 외부를 세차한 뒤 차체에 이상이 없는지 구석구

석 살피고 관리하도록 하자. 차량 내부는 화장한 날 실내바닥 매트를 들어내고 차 마다를 말린다. 바닥 매트는 여름철엔 되도록 물세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죽시트는 습기에 더욱 취약하다. 가죽에 땀 땀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기 쉬우므로 틈나는 대로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말린다. 가죽용 왁스를 뿌려주는 것도 좋다. 트렁크 통풍도 중요하다. 트렁크 양 사이드엔 차량 내부와 연결된 통풍구가 있다. 이 통풍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옷가지나 레저장비를 치운다. 탈취제를 뿌려두는 것도 좋다.

장마, 태풍, 집중호우와 습기

우리나라의 여름은 태풍, 장마 및 집중호우 등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습기라는 불청객이 주는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미리 제습제 한두 개 정도만 준비해 둔다면 여름철 습기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李根哲將軍之像

제11전투비행단 이근석관

제11전투비행단 소위 이 대 석

호국정신이 숨쉬는 곳, 이근석관

제11전투비행단 정문에는 근엄하게 서 있는 신식 건물이 있다. 『조국을 위해 무명의 초석이 되리라』던 故 이근석 장군의 말처럼 부대를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맞이하는 이근석관. 이근석관은 주말이면 장병들의 면회실로 이용되어, 면회객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면회객과 장병들이 함께 머물러 쉬고 있는 이곳이 바로 호국정신의 얼이 서려있는 이근석관.

신념의 조인(鳥人), 故 이근석 장군

이근석관 1층에는 故 이근석 장군의 행적이 담긴 동판이 새겨져 있어 부대를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故 이근석 장군은 최용덕, 장택창, 이영무, 박범집, 김정열, 김영환과 함께 공군창군 7인의 간부로 참여하였으며 1949년 10월 1일, 한국공군 창군과 동시에 공군사관학교장에, 1950년 4월 14일 공군 비행단장에 취임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L-4, L-5, L-6 경항공기를 직접 지휘하였고, 미공군으로부터 F-51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대구 기지로 직접 비행하여 이동시켰으며 이튿날 바로 출격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던 중, 시흥 상공에서 적 전차부대를 발견하고 적의 남하를 저지하다가 예기

(愛機)가 적 대공화기에 피격되자 적 전차에 돌진, 탱크를 폭파하고 장렬히 산화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무명의 초석이 되리라』는 평소 그의 말대로 조국의 하늘을 지킨 신념의 조인(鳥人)이 되었다.

호국정신 계승의 초석이 되어...

제11전투비행단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인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2년에 신축한 이 건물을 이근석관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건물 2층은 정신교육,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여,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가는 신념의 조인들을 키워내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부대를 방문하는 면회객들에게 호국 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예비군 및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의 장으로... 이근석관은 이제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제11전투비행단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참모총장배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를 다녀와서



객원기자 남 주 미

혹시 『키덜트(kidult)』라는 신조어를 아시
는지? 아니면 『밀리터리 매니아(military
mania)』는? 전자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그리
워하며 그 경험들을 다시 소비하려는 성인을
말하고, 후자는 민간인임에도 군 관련 지식
과 경험을 쌓는 것을 즐기는 준 전문가들을
말한다. 키덜트라고 하면 꼭 ET 피규어 인형
이나 만화 「들장미 소녀 캔디」가 떠오르던
기자였지만 이젠 거기에 조금은 특이하고 새
로운 기억을 첨가하게 되었다. 지난 5월 23일
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4회 공군참모총
장배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에 다녀온 후에는
말이다.

비행 시뮬레이션이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일반 개인용 컴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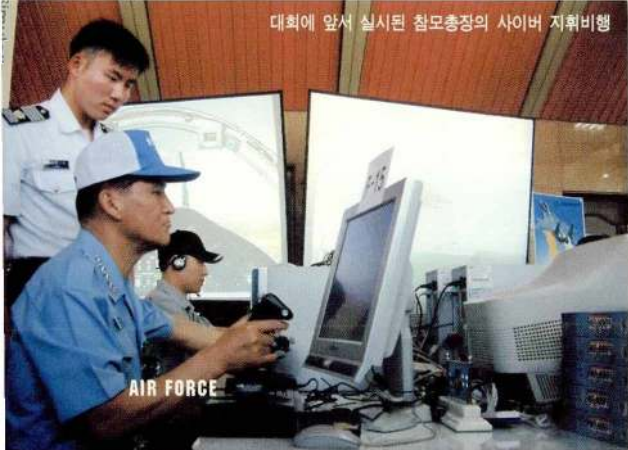


한 참가선수가 가져온 조종헬멧에 사인을 해주고 있는 이한호 참모총장

터를 이용해 비행 상황을 접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게임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이 비행
의 다양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
도록 제작되어 있다. F-15 편대전투, F-51단
독전투, F-16 공대지 공격, 공군1호기 착륙,
그리고 F-4와 F-86 초보자용 기록경기 등 총
다섯 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이 비행 시뮬레
이션 게임을 통해 비행 조종에 큰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항공 관련 가
상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공군에서
주최한 이 대회는 항공 지식과 가상 비행 훈
련을 연마해온 일반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
낼 수 있는 기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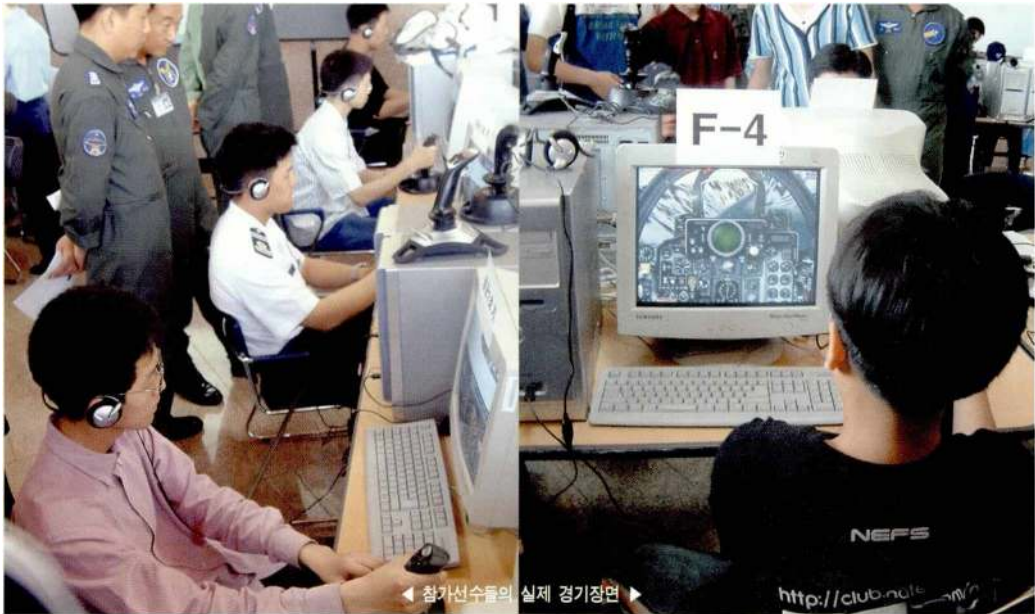
참모총장의 지휘비행으로 행사의 막은 오르고

처음 행사장에 발을 디딘 기자는 가득한
열기에 우선 놀랐다. 조이스틱을 잡고 화면
을 통해 가상 조종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옆
에는 호기심 넘치는 표정의 사람들이 여럿
붙어서 있었던 것이다. 대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열중인 그들의 모습에서
비행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한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찌면 그리 하나같이 똑같던지 웃음
이 나올 정도였다.



대회에 앞서 실시된 참모총장의 사이버 지휘비행

AIR FORCE



◀ 참가선수들의 실제 경기장면 ▶

행사는 이한호 참모총장과 일반인 3명의 F-15 편대비행 시범으로 시작되었다. 현역 비행 기록이 4천 시간을 넘는 베테랑 전투 조종사 출신의 참모총장이 컴퓨터 앞에서 가상 비행을 하다니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열띤 취재 열기와 참가자들의 신기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몰두하는 베테랑 전투 조종사. 처음 해보는 시뮬레이션

조종이라 조금 어색해 하시긴 했지만 역시... 4,000시간의 관록은 살아 있다는 말 밖에.

『뭐, 시뮬레이션 조종인데 어렵겠어?』라 생각한 것은 기자의 명백한 오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경기 참가자로 왔다가 즐지에 완전 초보를 가르치게 된 공사 생도의 친절할 설명을 들으며 기자가 실제로 잡아본 비행조종장비는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만 움직이면 갑자기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버리고, 표적이 가까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지. 땀을 흘리며 고전하는 초보

제자에게 스승님 생도는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주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보았다니. 왠지 참가자들에게 미안해지는 마음. 미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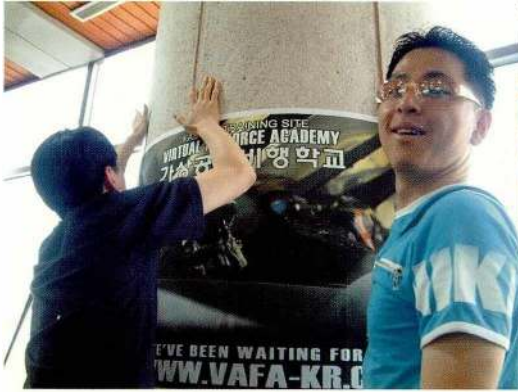
대회는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F-15의 2:2 편대전투 경기나 6·25에 도입되었던 F-51의 1:1 공중전투는 서로의 전투기를 찾아내어 격추시키는 방식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였다. 헤드셋을 낀 경기자가 화면을 바라보는 그 매서운 눈빛은 실제 프로 조종사의 그것만큼이나 열정을 담고 있었다. "피겨됐음. 작동 불능." 동반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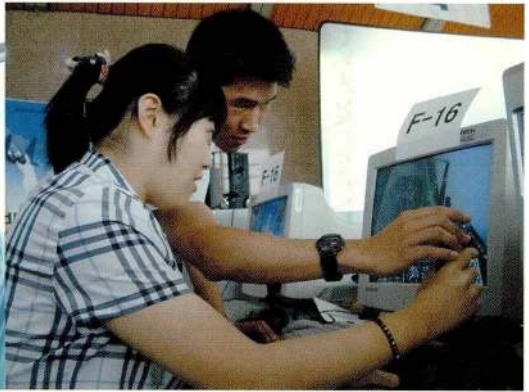
참가선수들에게 대회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심판 조종사

자에게 보고하는 말투는 제법 그럴싸했고, 지상에 있는 표적지에 조준하여 폭탄을 떨어뜨리는 F-16 공대지 공격 부문에서는 자로 쟀듯 거의 모든 표적들을 맞추는 신기(?)를 발휘하는 참가자들이 여럿 보였다. 구불구불한 계곡에서 레이싱하는 기록 경기에서는 계곡에 부딪치자마자 지켜보던 모두가 '아!' 하는

▼ 대회에 참가한 비행시뮬레이션 동호회 회원이 대회장 기둥에 동호회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 대회에 참가한 공사생도에게 F-16 시뮬레이션 조종법을 배우고 있는 기자



안타까운 탄식을 내뿜기도 하고, 공군1호기를 착륙시키는 경기에서는 참가자가 무사히 공항에 안착하자 기쁨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말, 말 그대로,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는 아마추어들의 잔치라 할만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이버 파일럿들의 열기

심판으로 나선 공군의 프로 조종사들과 열띤 대화를 나눌 만큼의 애정과 자부심을 가진, 행사장을 가득 메운 아마추어들의 열기. 작은 조종간을 잡고 가상의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들은 어린 날의 비행기 장난감을 추억하는 단순한 키덜트가 아니었고, 군 전문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는 단순한 밀리터리 매니아도 아니었다. 시뮬레이션이냐 직접 능숙히 비행 조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아마추어 사이버 조종사』들이었던 것이다.

흥미로웠던 것은 공사 생도들과 일반인 간의 경기였다. 흰색과 검색의 깔끔한 정복을 입은 생도들이 컴퓨터 앞에서 조이스틱을 잡자 어색한 듯 그럴 듯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일반 참가자들 또한 생도와 마주앉아 경기를 시작하면서 사뭇 긴장하는 듯 했다. 그리고 곧 선보인 예비 전투조종사들의 실력은 역시 기대만큼이나 만만치 않았다. F-16 공대지 공격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공사 2학년 오인택 생도는 경기가 끝난 후 동기들

과 기쁨을 나누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출전을 하면서도 저희끼리 ‘만약에 공사 생도가 1차전에서 탈락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어 기쁩니다.”

비행 · 항공 분야를 사랑하는 모두의 잔치

몇 번의 현장 탐방을 통해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군과 항공 분야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과, 그에 맞추어 공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과 만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풀빛의 조종복을 입은 실제 조종사들이 경기의 심판을 보면서 가상의 전투기를 조종하는 일반인들의 실력을 유심히 관찰하였고, 일반인들은 직접 만난 조종사들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한호 참모총장의 사인을 받은 헬멧을 쓰고 득의양양해 하는 비행 시뮬레이션 동호회 회원들의 얼굴 가득한 웃음. 화면 속에 복잡한 계기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는 공사 생도들의 정성. 아까 한 말을 정정해야겠다. 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는 『아마추어들의 잔치』가 아니라 『비행, 항공 분야를 사랑하는 모두의 잔치』였다. Ⓡ





컴 안에 戰場이 있다!

- 공군 CERT¹⁾를 줌인하다 -

국방부 대위 조 세 영

탱크나 전투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다고?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으나 미국이 개발 완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객체이동가상무기(Autonomous Mobile Cyber Weapon, AMCW), 『사이버 공간의 크루즈 미사일』이라 불리는 이것은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네트워크상의 공격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해 적국의 기간 통신망이나 방공망을 통제하는 중요 전산망을 파괴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적 컴퓨터에 심어놓았다가 적절한 시기에 터뜨릴 수 있는 논리폭탄, 스스로를 자기복제해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웜(worm), 네트워크 내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스니퍼(sniffer) 등 사이버 무기들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기기와 각종 통신 수단,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전쟁의 중요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 바야흐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의 시대가 오고 있다. 1차 대전시 실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항공기가 공중공간을 가장 중요한 전장으로 만들어 놓았듯, 최근의 정보기술은 가상공간을 다음 세대의 핵심 전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탐지-식별-요격-격파, 사이버 공간엔 CERT가 있다.

CERT. 2000년 6월 공군 중앙전산소 예하 조직으로 신설됐다. 물론 총도 쏜다. 군인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주된 싸움터는 네트워크 상에 있다. 그들의 진지는 정보보호체계, 무

1)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줄인 말. 정보보호실이라고도 하나 일관성을 위해 이 글에서는 CERT로 표기한다.

▼ 칠판선과 레이더 콘솔 앞에서만 경계근무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여기도 경계태세 이상 무!



기는 백신이다. 주된 임무는 공군의 정보체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및 중요 정보자료를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적의 정보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이들이 장차 떠맡아야 할 일이다. 규모로 보서는 작지만 임무로 보서는 큰 팀이 바로 CERT다.

바이러스를 실시간 감시하고 치료하고 통제하는 백신체계,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전자우편용 방역체계, 외부의 해킹 공격이나 비인가자의 접속을 차단해주는 방화벽(Firewall), 해킹이나

▼ 가상공간도 공격과 방어가 이뤄지는 또 하나의 전장



비인가자 접속행위를 탐지해주는 침입탐지체계(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등이 그들에 의해 운영된다. 비행단 등 각급 부대의 전산망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보강해주는 것 역시 그들의 중요한 임무다.

CERT는 바이러스를 먹고 크다.

넷스카이(Netsky) 웹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지난 2월 말을 CERT의 박남열 중위(29)는 이렇게 기억한다.

“25일 국내 최초 발견된 넷스카이(Netsky)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처음엔 일상적인 악성코드로 판단, 우리 CERT는 전 부대에 경계령을 내리고 백신을 보급했죠. 그러나 그 감염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소강국면에 접어든 29일 오후까지 김밥과 오뎅국물로 요기하며 『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쉰 것, 자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요. 오죽했으면 중앙전산소장님께서 ‘재 좀 들여보내 썰겨라’ 라고 하실 정도였겠습니까?”

넷스카이(Netsky) 등 최근 들어 잦아진 웹 바이러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CERT는 백신의 설치 및 갱신 상태, PC 사용내역 분석, 비인가 게시판 탐지 등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정보보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전 부대에 적용, 운용 중이다.

“바이러스, 밟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제 『자식』들도 다 넷스카이 덕에 태어났잖아요. 산고가 있었으니 더욱 예쁘죠. 국방부, 합참, 기무사 등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자식』이라고 부르는 박 중위. CERT 요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그를 먼저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다.

▼ "One for all, all for one!" 모두 하나가 되어야 CERT는 돌아간다.

가상공간의 싸움도 팀워크가 있어야

CERT에선 장교든 병사든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맺어진 일들이다. 개인의 실력과 업무 스타일이 그대로 존중된다. 얼핏 봐서는 군내 어느 조직보다도 개인적·분화적인 부서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준섭 소령(39)에 따르면 이는 순도 100%의 편견.

“각각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우리지만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자면 야전부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에서 어느 한 곳의 위험은 곧 전체의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방호를 위해서는 제반의 대응 활동들이 반드시 동시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CERT에 있어서 팀워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 시도 걸음을 늦출 순 없다.

『사이버 세계대전』의 저자 제임스 애덤스는 컴퓨터칩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는 『무어의 법칙』이 곧 정보전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한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은 전쟁의 개념을 하루하루 바꿔놓고 있다. CERT가 한 시도 걸음을 늦출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한이나 중국 등의 정보전 위협에 대해서도 항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전주환 팀장(41).

“북한은 해커부대 운영을 위해 정보전 수행장교를 연간 100여 명씩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또한 적의 정보 시스템을 교란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전자전 특수부대 넷포스(Net Force)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광범위한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전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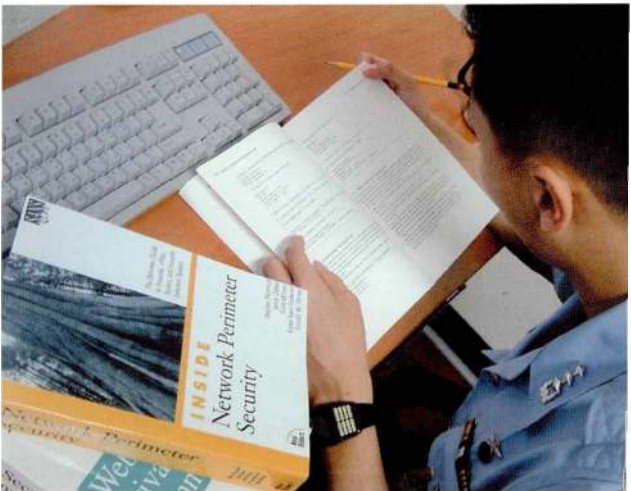


컴퓨터와 네트워크 없이 일한다는 것은 이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우리 공군인 모두는 그대들 CERT를 믿는다. Ⓡ

디지털 기기와 각종 통신 수단,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전쟁의 중추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 바야흐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의 시대가 순고 있다.

▼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정보통신기술. 연구를 게을리 하면 바로 도태다.



헬멧장착 전방시현기

(HMD : Helmet Mounted Display)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HMD의 개발배경

항공기 발달로 인해 시스템이 복잡화되면서 조종석 계기류 증가로 인한 효과적인 시현방법이 항공기 설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차기 세대의 전투기는 거의 단좌 전투기여서 집합 계기의 필요성이 각별히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시현(示現)시스템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 현재 F-16 등에 장착되어 있는 전방시현기 HUD(Head-up Display)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기 장착 미사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적외선 미사일로 후방이나 측면의 목표를 추적하기 위한 시계 밖(Off-Bore sight) 목표물에 조준점(Seeker)을 맞추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1985년 개발된 러시아의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AA-11이 헬멧과 상호 연동된다는 사실이 최초로 서방에 알려지면서 서방국가들도 이에 대응한 유사 무기체계 개발에 착수, 시현 장치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헬멧장착 전방시현기(HMD)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HMD와 연동되는 탐지장비

HMD와 연동되는 탐지장비에는 현재 FLIR(전방관측 적외선장비 : Forward Looking Infra Red)가 있다. F-15K용 JHMCS(헬멧장착 연동시스템 : Joint Helmet Mounted Cueing System)의 경우 LANTIRN(저고도항법 및 주/야간 정밀공격장비 : Low Altitude Navigation & Targeting Infra Red for Night)



HMD가 장착된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조종사

과 같은 FLIR 장비가 동체하부 측면에 장착되어 목표물의 탐지, 식별과 공격조준에 사용된다. 탑재된 LANTIRN으로부터 전하방에 적외선 지형탐지를 하고 영상사진을 HMD에 표시한다. 이때, 적외선 식별이 가능한 목표물은 위치지정, 목표물 추적, 조준, 폭탄투하가 HMD로 가능해 주야간 공격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 획득한 정보는 기록이 가능하므로 DATA LINK 시스템으로 연동할 경우 우군 항공기간 영상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이처럼 HMD는 NVG(야간투시경 : Night Vision Goggle)와 접목 운용시 야간 공격능력의 획기적인 신장이 기대된다.

HMD의 장점

HMD의 장점은 계기반이나 HUD와는 달리, 조종사가 어느 곳을 보아도 비행정보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HUD가 가지는 제한적인 시야 이외의 범위까지 미사일의 Seeker를 목표물에 향하게 할 수 있고, 탑재 추적장치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추적 미사일에 대해 지속적인 목표물 지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조종사의 눈 바로 앞에 주요 비행정보를 시현시켜 주므로 조종사가 적기를 찾느라고 고개를 돌려도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즉, 조종사가 쓰고 있는 헬멧에 HUD의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이다.

HMD의 단점

지금까지 개발된 HMD 장비로는 HUD의 모든 정보를 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HUD와 병행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HMD와 HUD 사이의 비행정보 기호의 표시 통일 문제(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방식)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 다른 단점으로 헬멧의 무게가 무거우면



라팔에 채용된 HMD

높은 한계하중(G)이나 탈출을 위한 사출 시에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 시스템을 내장하고도 무게를 최소화 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HMD의 개발현황 및 전망

HMD는 라팔이나 미 공군과 미 해군을 위해 개발 중이다. 이중 F-15K에 함께 제안되고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가 바로 JHMCS(헬멧장착 연동시스템)인데, 모듈식 항전장비로서 헬멧에 착탈이 가능하며, 전투기의 HUD에 시현되는 내용을 조종사의 헬멧 바이저에 시현해 줌으로써 조종사의 작업량을 감소시켜주고, 상황인지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비이다. 미 해군의 F/A-18C/D에 의한 비행시험 내용 중 괄목할만한 것은 JHMCS를 사용한 미 해군의 공대지 공격시험에서 표적포착시간을 기존에 비해 5배나 단축시킨 것이다. 또한, 차세대 고기동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개발과 연동한 JHMCS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현재, 미 공군은 악시정 및 야간에도 임무가 가능하게 PNVG(파노라마 야간투시경 : Panoramic Night Vision Goggle)도 개발 중인데, PNVG는 수평 100°와 수직 40°의 시야를 제공해주며, 야간 표적 획득 및 추적 시현장치와 호환 가능하게 된다.

차세대 개념의 헬멧은 진보된 육안 추적 및 헬멧 표적 시스템으로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JSF(F-35)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데, JSF에는 HUD를 채택하지 않고 HMD가 주장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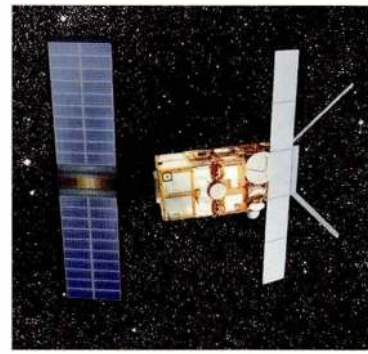
곧 도입되는 F-15K에도 HMD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다.



유럽의 공동 우주개발



정지기상위성 Meteosat



지구관측위성 ERS

유럽의 우주개발은 유럽의 14개국 및 캐나다(협력국)로 이루어진 ESA(European Space Agency : 유럽우주기관)가 중심이 되

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ESA는 ESRO(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 유럽우주연구기구)와 ELDO(European Launcher Development Organization : 유럽로켓개발기구)를 통합하여 1975년 설립되었으며 우주과학, 우주환경 이용, 통신, 지구관측, 우주수송계 개발 등 비군사적 우주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통신·측위 위성 사업

통신 분야의 활동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 1단계 : 위성통신 시스템 및 시장 조

사·평가

- 2단계 : 멀티미디어 위성통신기술개발
- 3단계 : 일반위성통신 기술개발
- 4단계 : 첨단위성통신기술 연구개발

ESA는 유럽 독자의 전지구적 위성측위 시스템인 Galileo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와 유럽 항공기항행안전기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측위사업 제1단계의 목표는 미국의 GPS와 러시아의 Glonass에서 얻어지는 신호 정도 및 신뢰성의 향상이다. 현재 2기 1조로 이루어진 Inmarsat-3를 이용한 항공전도항상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Galileosat을 2010년 발사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지구관측 사업

지구관측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ESA의 예산 현황을 보면 ESA가 지구관측 분야를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인식함을



지구환경 감시위성 Envisat

알 수 있다.

ESA의 주요 미션은 다음과 같다.

○ 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 2호 (ERS-2) : 1991년 발사된 ERS-1의 후속위성으로 합성개구 레이더(SAR) 등에 의한 관측을 계속하기 위해 1995년 4월에 발사되었다.

○ Environment Satellite(Envisat) : SAR, 대기관측센서, 저·중 분해능 광학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2002년 3월에 발사되었다. 설계 수명은 5년으로 종합적인 지구환경을 감시한다.

○ 정지기상위성 Meteosat의 차세대 시스템(MSG : Meteosat Second Generation) : MSG는 분해능 향상과 관측과장대역의 세분화로 더욱 높은 수준의 기상관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1호기는 2002년 8월에 발사되었으며 추후 3기 더 발사될 예정이다. 1호기의 설계 및 개발은 ESA가 담당하였으며 개발 완료 후 EUMETSAT으로 운용 및 관리가 이관되었다.

유인우주활동

ESA는 1993년 예산 부문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유인활동의 자립화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유인 우주왕복선 개발을 중지하고 1994년 2월 유인우주활동 계획을 개시했다.

ESA의 우주비행사는 2004년 4월 현재로 18명이다. 이들은 스페이스셔틀이나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고 우주실험을 했다.

주요 우주센터

○ 유럽우주연구소(ESRIN) : ESA의 시설로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다. 지구관측위성의 데이터 처리, 배포 및 수신, 해석을 실시한다. ESR-1호와 2호를 운용하고 있으며 ESA 자산 이외에 미국의 Landsat, NOAA 위성의 데이터 등을 수신한다.

○ 유럽우주운용센터(ESOC) :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있으며 위성과 지상국의 운용 및 지상국의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다.

○ 유럽우주연구기술센터(ESTEC) : 네덜란드에 있는 ESA 최대의 필드센터로서 1,0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학·통신·지구관측·미소중력·ISS 등 각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관리, 지구과학프로그램 실행, 미래의 위성프로그램 연구, 위성 설계·개발·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유럽우주비행사센터(EAC) : 우주비행사의 트레이닝과 지원, 유럽이 참가하는 유인 우주미션 지원, 국제협력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일의 쾰른에 위치해 있다. 📍

유럽 특자의 전지구적 위성측위 시스템 Galileo



역사의 책장 위에 꽃수를 놓으셨네

- 비오는 날의 동작동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스케치 -

공군본부 중위 김성경

비오는 날의 동작동 국립묘지(국립현충원)는 서울에서 가장 한적한 곳 중 하나이다. 바로 앞 동작대교와 올림픽대로의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뒤로하고, 현충원 내로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느껴진다. 부지만 해도 43만 평에 이르고, 묘소, 위패, 무명용사의 안장 수를 합치면 16만 4천위(位)에 달하는 이곳에서, 두 시간 여 동안 본 사람은 각 전시관 관리인과 현충문을 지키고있는 의장대 병사까지 합쳐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비오는 날 사람이 없는 이 거대한 묘지에서 나는 어렸을 적 묘지를 지나며 느꼈던 괜한 두려움 대신 왠지 모를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 듯 하다. 얼마 전 근처 공원에서 혼자 걸던 여성을 괴한이 살해한 사건이 있어

무서울 만도 한데, 혼자서도 우의하나 걸치고 셋길을 잘도 걸어다녔다.

민족의 성역, 국립묘지를 지키는 상징물들
국립 현충원은 1955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중심 건물은 현충문과 현충탑이다. 현충탑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추앙하고자 세워진 탑으로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





지를 상징하고 있다. 1969년에 건립된 현충문은 현충탑의 출입문으로서, 조선초기 다포 양식을 모방해 지어졌다. 현충문 기둥의 색과 질감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사용된 대리석 기둥과 비슷했지만, 기둥의 아래서 1/3지점이 볼록한 한국적 배흘림 양식으로 세워져 웅장한 분위기와 한국적인 섬세한 분위기를 동시에 내고 있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현충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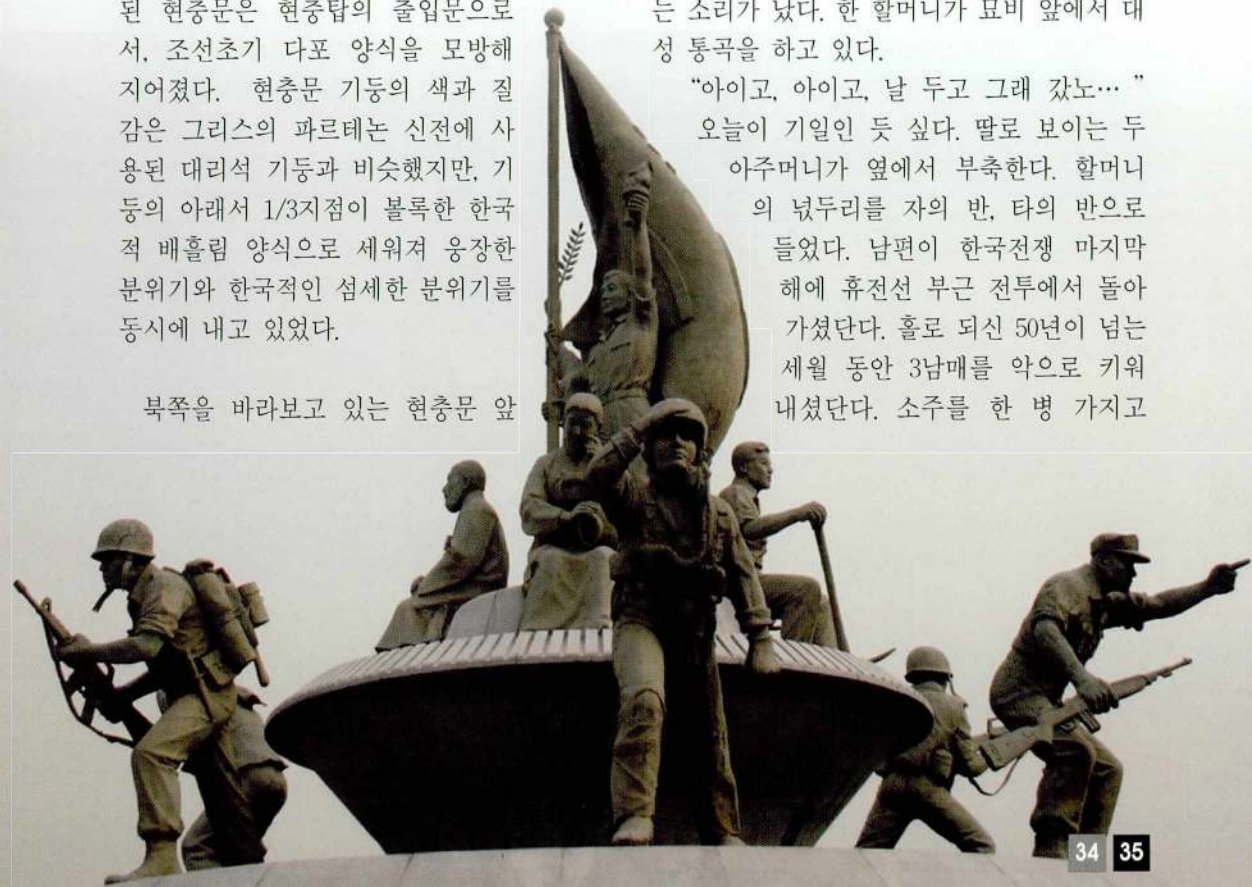
쪽으로 넓은 잔디밭과 분수대가 서 있고, 동편으로부터 서편까지 시계방향으로 올망졸망 묘비 간격도 일정하게 장병묘역이 현충탑을 감싸안듯 둘러싸고 있다. 장병 묘역 외곽으로는 육탄 10용사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장군묘역, 애국지사 묘역, 경찰 충훈탑 등이 세워져 있다. 묘비의 앞면에는 이름과 군경(軍警)의 소속 계급이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순직한 날짜와 장소가 새겨져 있다. 동작동 현충원은 1982년도에 만장(滿葬)이 되어 추가 안장은 없으며, 만장과 동시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충탑을 끼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서쪽부터 묘비를 보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딘가에서 곡하는 소리가 났다. 한 할머니가 묘비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날 두고 그래 갔노...”

오늘이 기일인 듯 싶다. 딸로 보이는 두 아주머니가 옆에서 부축한다. 할머니의 넋두리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들었다. 남편이 한국전쟁 마지막 해에 휴전선 부근 전투에서 돌아가셨단다. 홀로 되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남매를 악으로 키워 내셨단다. 소주를 한 병 가지고



오셨지만 갈 때 도로 가져가셨다.

할머니를 뒤로하고, 묘비 사이를 걸었다. 하늘에 살다가 하늘에서 순직한 조종사의 묘비, 아버지가 아들의 순직을 애도하는 글을 새겨놓은 비석, 사람이 없는 묘비 사이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맘을 흘리고 피를 흘린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조국의 포근한 흙 속에 웃으며 잠드 옵소서

나오는 길에 한 가족이 참배를 왔다. 참배를 위해 삼패인에 과자를 가져온 가족의 마음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묘비 앞에 서서 묵념하는 것을 쫓스러워하며 키득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전쟁 중 현해탄을 건너와 꽃다운 젊음을 바쳤던 제일 학도의용군 50위를 기리며 이은상 시인이 바친 놓은 문구가 떠올랐다.

“내 나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젊은이들
역사의 책장 위에 꽃수를
놓으셨네
조국의 포근한 흙 속에
웃으며 잠드옵소서”



전시관으로 통하는 통로 양편에 전시된 전시자 명부

전쟁 기념관 스케치

1991년 6월에 개관한 된 전쟁 기념관은 3만 5천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조성된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역사관이다. 5년 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이곳은 연 관람 인원만 130만명에 달하며, 『안중근 展』, 『몸속탐험전』 등 연중 내내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각종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쟁 기념관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았지만, 아이들과 외국인들도 많았다. 전시실 입구에서 동요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마침 열리던 『몸속탐험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아이들이 신이 났는지 뛰어다니는 모습과, 외국인들



이 한국전쟁 전사자 속에서 자신의 나라 명단을 진지하게 찾아보는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산을 쓰고 야외 전시관을 둘러보는 이들은 중국 단체 관광객인 모양이다. 우산을 쓴 가이드가 중국말로 전시물 설명을 한다. 한국전쟁 종전도 벌써 50년, 이런 기념관이 없다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치렀던 전쟁이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모르고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일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 기념관의 야외 전시관에 한국 전쟁 때 쓰이던 무기들은 물론 최근의 훈련기인 KT-1까지 전시되어 있다. 다른 전시물들의 5배쯤에 해당하는 거대한 B-52폭격기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해 두었다. 여기저기서 물을 뿜어 올리는 분수는 떨어지는 빗방울과 부딪쳐 역동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었다.

전쟁기념관 앞에는 『형제의 상(像)』이 서 있다. 국군 장교로 근무하던 형과 인민군 병



사로 근무하던 동생이 전장에서 극적 상봉을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조형물이다. 국군 장교인 형은 상봉의 기쁨에 무너져 내리는 동생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팔뚝에 힘줄이 보일 정도로 와락 끌어안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중요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이다. ⬇



나라에
 돈이
 기



그림 : 김영은



작년 여름, 일간지에는 한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6.25 참전용사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재향군인회를 찾아와
6000만원을 쾌척한 김명희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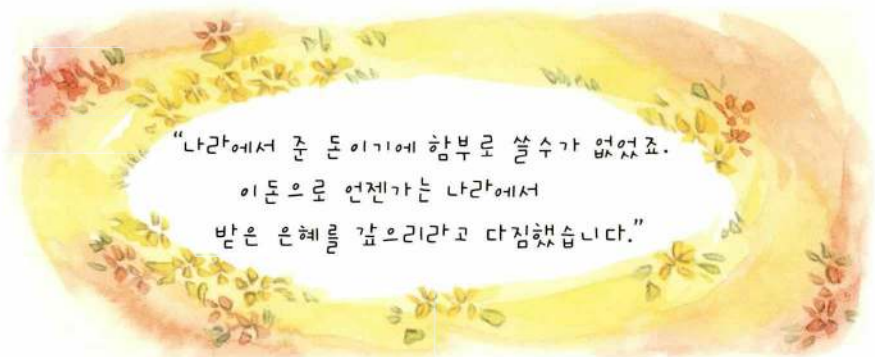


김할머니는 6.25 당시 간호장교로
 복무하셨다고 합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최전방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며, 이 땅의 평화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치셨지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16년을 더 군에 복무하고,
 '69년에 대령으로 전역한 김할머니는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며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셨습니다.



혼자 타국생활을 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은 한푼도 쓰지
 않고 모으신 김할머니... 평생을 '**대한민국 간호장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오셨다는 할머니께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라에서 준 돈이기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죠.
 이 돈으로 언젠가는 나라에서
 받은 은혜를 갚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모두 바치고 이제는
 인생의 뒤편길에서 있는 김할머니와 같은
 호국 용사들... 그분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온 '**나라 사랑**'의 짐을, 이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소유권 주장, 등기와 등록으로 확실하게!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지귀연

현 행법상 등기나 등록과 같은 중요한 문서의 효력에
의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을 통하여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란 어렵다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 곳이 내 땅이라고 외쳐봤자, 말도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에게 공격만 당하게 될 뿐이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가만히 따져보더라도 누가 갑자기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막상 반박할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다. 규모가 작은 것은 본인이 들고 다니니까 그나마 낫지만, 타 지역에 있는 내 땅과 같이 부피가 크고 규모가 작지 않은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유권의 증명은 등기와 등록으로

때문에 우리 법률은 그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 등록 등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즉, 법률이 정한 일정한 문서에 소유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샀어도 자기 것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도 마찬가지이다. 차를 새로 구입했어도

등록을 해 놓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들도 등록을 하게끔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해 버리면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등기나 등록을 해야만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들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한다.

유사문서에 속지 맙시다!

한편, 살다보면 별별 문서들의 명칭을 듣게 된다. 토지대장, 건물대장은 물론이요, 어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등기필증(소위 땅문서) 등등 다양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서는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토지대장은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표시할 뿐, 토지 주인이 누구냐에 대하여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 주민등록 등본도 가족관계 및 거주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려는 것일 뿐 큰 효력은 없다. 이른바 땅문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권리, 소유권 등록으로 확실하게

분쟁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등기나 등록이 100 퍼센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사고 이름만 남의 것으로 등록했다거나, 부부가 같이 집을 샀는데 편의상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를 해 놓았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자동차 주인으로 올려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팔았다든지, 부부가 결국 이혼을 하는데 아내가 자신도 그 집에 대해 2분의 1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등기나 등록과 같은 중요한 문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을 통하여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차를 내주어야 하는 사람, 돈 한푼 못 받고 이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후회를 하여도 이미 늦어버리는 것이다.

중요한 효력을 가진 문서들은 물어서라도 챙겨라

신문에 나는 수많은 경제기사들이나 뉴스를 보고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문서들이 필요한가와 그 문서들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가이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집을 사기 위해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들, 간직해야 할 서류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중 중요한 효력을 가진 문서들을 찾아내 이들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권 주장, 체면 차리지 말고 단호하게!

얼마 전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결심의 계기가 구타 등이지만,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파트의 등기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명의를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하고, 부인은 부부공동의 명의로 하자고 한 것이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 다툼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겠다는 것인데,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그 여자 연예인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우리 공군 장병들도 그렇게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단호하여야 한다. 사회 생활의 시작을 군대에서 하는 초급 간부들은 더욱 그렇다. 어색한 관계를 만들기 싫어서, 나중에 별탈 없을 것 같아서 등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권리 주장 하나 못 하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다. Ⓣ

말하기 어려운 고통

치

질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이 철 민

치질, 아파도 말 못하는 사정

세상엔 참 많은 병(病)들이 있지만... 같은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회적인 대접이 달라서 어떤 병은 미화되고, 또 어떤 병은 감추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가령, 백혈병은 수많은 드라마와 책 속에서 미모의 여자 주인공이 앓고 있는 병이고, 중세에 결핵은 화가, 음악가, 시인 등 예술가들이 주로 걸리는 병으로 『시인의 병』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오히려 조금은 우아한 병으로 인식된 적이 있었다. 한편, 나병이나 AIDS 같은 병은 본인의 고의성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천대를 받아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항문 주위에 생기는 병은 은밀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럽다는 인식 때문에 숨겨지고 치료 시기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쾌변도 복(福)이다

사실 배변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 프로이트는 정신발달 단계 5단계 중 항문기를 제 2단계로 제시하면서 이 시기에 자율성이 형성되고, 잘못되면 강박성, 완벽성, 죄책감, 가학적 또는 피학적 성격 등의 항문기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굳이 프로이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설사 또는 변비로 배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항문의 질환으로 시원한 배변을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항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들 중에서 흔한 것으로는 치질(또는 치핵), 치열, 치루, 항문 소양증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치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잘못된 습관이 치질을 키운다

긴박한 작전에 투입되거나 훈련이 있을 때, 그리고 뻑뻑한 일정을 소화할 때는 뱃속에서 응급 신호가 오더라도 바쁜 시간에 쫓겨 배변을 거를 때가 많고, 이러한 일이 잦아지면 변비로 변이 굳어져 정상적인 변을 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변비가 생기면 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힘도 많이 들어가며(복압의 상승), 딱딱한 변 때문에 항문의 손상도 받기 쉬워진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항문의 병이 생기면서 통증으로 배변을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변비가 심해지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 한편, 오래 앉아 있는 좌식 생활을 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신문이나 책을 들고 가는 습관, 잦은 음주 등도 변비와 치질을 만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과일이나 야채를 적게 먹는 식습관도 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종류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질

치질은 흔히 내치질과 외치질으로 구분하며(보통 암치질, 수치질이라고도 얘기함) 증상으로는 출혈, 돌출, 통증의 3대 증상이 있다. 이러한 증상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는데, 단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도는 울혈이나 배변시에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하고, 2도는 배변시 항문으로 탈출된 치핵이 자연적으로 들어갈 때를 말한다. 3도는 항문으로 나온 치핵이 손으로 복귀시켜야 가능한 정도를 말하고, 4도는 복귀가 안되어서 항상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때를 말한다. 이 외에도 항문 주위가 가려운 항문 소양증을 동반할 때가 많고 항문 주위에 점액이 오염되는 것은 내치질의 흔한 증상이며 혈전성 치핵에서는 주로 통증이 수반된다. 또 항문이 화끈거리는 것은 치핵을 증창시키기 때문이며, 출혈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이 적고 선홍색이며 힘을 많이 줄 때 나온다. 때로는 출혈이 많이 되면서 직장 내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뉘볼 수 있는데,

비수술 치료로는 고섬유식으로

배변을 조절하여 증상을 감소시키고,

물을 많이 마셔

변의 경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에 고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짙은 색깔의 혈전을 배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통증을 동반한 종괴를 호소하고 이것이 수일에서 수주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치질의 치료와 예방

치질의 치료는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뉘볼 수 있는데 비수술 치료로는 고섬유식으로 배변을 조절하여 증상을 감소시키고, 물을 많이 마셔 변의 경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치료에 실패하면 경화요법, 적외선 치료, 고무 결찰법, 수술 요법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좌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는데, 좌욕은 치질의 예방에 있어서나 증상 완화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좌욕은 특히 배변 직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물의 온도는 손으로 만져서 약간 따끈하게 느낄 정도가 좋고, 1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없거나 좌욕을 할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물티슈를 이용하거나 화장지에 온수를 적셔서 항문 주위를 마사지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치질은 약보다는 본인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 즉, 병과 친해져 많은 정보를 알면 그만큼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화장실 갈 때마다 반복되는 통증과 출혈에 대한 걱정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해보자. 📌

韓·美 장병들, 머리 올린 날

작전사령부 중위 강민정



한·미 장병이 함께 한 전통 성년의례

2004년 성년의 날(5월 17일 :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작전사령부에서는 성년을 맞은 한·미 공군 장병들을 위하여 『전통 성년의례』가 재현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성년을 맞은 1984년생 장병은 한·미 모두 합쳐 총 106명.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기를 매듭짓고 어른이 됨』을 축하하는 전통의식을 가졌다.

작전사령부가 우리의 『전통 성년의례』행사에 미 공군 장병들도 참여시키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한·미 공군 장병들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지인 만큼 미 장병들에게도 한국

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행사의 막이 오르고

색색의 고운 빛깔 한복과는 대조적으로, 단상 위에서 진행된 행사는 사뭇 진지하고 엄숙했다. 전통의례 대표로 선발된 장병은 한측 강현모 일병(작전사령부, 남자)과 미측 Megan L. Morphy 일병(미7공군, 여자). 단상 위에 노란 저고리 빨간 치마, 빨간 땀가죽을 들고 곱게 앉아 있는 노란 머리 외국인의 자태가 너무나 곱다. 옛날옛적 5월의 푸르른 창공으로 빨간 땀가죽머리를 나풀거리며 그네를 타던 춘향이 마저 연상된다.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박 물린 저 땡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속에 나부낀다.』
- 가곡 『그네』 중

성년의례는 남자의 경우 『관례』라 하고, 여자의 경우 『계례』라 한다.

『관례』는 크게 삼가례, 초례, 가자례로 이루어진다. 삼가례는, 상투를 틀고 복건(모자)을 씌우고 심의(공부하는 선비의 평상복)를 입는 『초가』, 선비의 외출복인 갓과 도포 차림을 하는 『재가』, 공부한 선비의 최고지위 복장인 복두와 앵삼을 입는 『삼가』로 이루어진다. 한번 옷을 갈아 입을 때마다 성년을 맞이한 사람의 행복을 비는 축사를 내린다.

초례는 어른됨을 인정하는 의미로 술을 내리는 의식. 마지막으로 가자례는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자를 지어 부르게 하는 자(子)를 내리는 의식이다.

『계례』는 머리를 빗고 쪽을 지어 어른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화관을 쓰고 배자(어른이 입는 예복)를 입는다. 그후의 초례와 가자례는 남자와 같다.

엄숙함과 흥분이 교차된 성년식 풍경

올해 작전사령부 성년의례에서 가장 빛난 것은 Morphy 일병. 한국의 전통 여인들처럼 큰절을 올릴 때에도 동작 하나하나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특히 여자는 남자와 달리 배(倍)수로 절을 해야 하는 조선시대의 예에

따라 4번 절을 할 때에도 정성과 예를 다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성년을 맞은 강 일병과 Morphy 일병이 받은 자는 『송두』와 『선아』. 남자는 장수하고 절도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이고, 여자는 정숙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라는 의미의 자를 각각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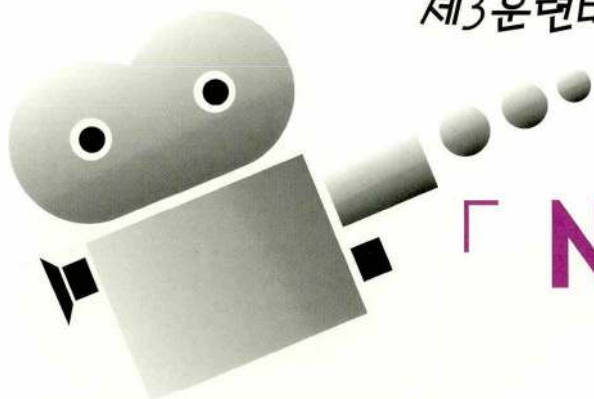
엄숙하게 진행되는 의식을 보면서 신기해 하기는 한국 장병이나 미국 장병이나 모두 마찬가지. 앞쪽에 앉은 미 장병들은 복장이며 말하는 것이며 한가지도 놓칠 수 없다는 듯 연신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다. 성년을 맞은 대표 자들과 더불어 모든 장병들이 성년선서를 할 때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에 흥분이 되는 듯 미군 장병들의 얼굴에도 흥조가 나타났다.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 되며...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하신 선대의 어른들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성숙하게 해낼 것과 미래사회의 창조적인 일꾼으로서 한국 사회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1984년생 한·미 공군 장병들은 색색 고운 빛깔의 한복과 함께 뜻깊은 성년의례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

제3훈련비행단 영상제작동아리



「Nemo」

제3훈련비행단 중위(진) 공 유 진



영상은 우리들의 세상을 그대로 복제한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려주기도 하며,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참으로 멋진 『대화』다.

네모난 스크린에 둥근 세상을 담는다!

『푸른하늘』이 노래했듯이 세상은 온통 네모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은 모두 둥근 우리네 세상에 비해 너무 차갑고 냉정하다. 그러나 네모난 스크린만은 다르다. 네모지만 그 속에 둥근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둥근 세상을 네모난 화면에 담는다!' 이것이 우리 동아리의 목표고, 그래서 우리 동아리 이름은 네모(Nemo)다. 네모난 스크린, 네모난 텔레비전, 네모난 모니터에 우리들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카메라에 나의 혼을 담는다.

카메라는 참 이상한 발명품이다.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이 카메라와 친구가 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카메라를 잡은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담고, 아름다움을 담으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파헤치기도 한다.

우리 동아리는 이런 카메라와 친구가 되기 위해 모였다. 카메라를 잡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힘을 느낄 수가 있다. 과연 이것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결국 우리는 카메라에 우리의 혼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군 생활 속에서의 새로운 활력소

Nemo는 매주 월요일 일과 후 모임을 가진다. 장교 2명, 부사관 1명, 병사 2명 이렇게 다섯이 Nemo의 구성원이다. 다소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한 편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다.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담고 있는 창조적인 생각들을 쏟아낸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라며, 즐거워하고, 어떻게 찍어 볼 것인가를 고민한다. 대체로 그 아이디어들은 장비 부족과 실력부족을 핑계로 아이디어 노트에 적히는 것으로 사장되고 말지만 우리에게 즐거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언젠가는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영상물이 나오리라 믿는다.

동아리 발표회 준비 과정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축제』와 박카스 CF를 모방해서 만든 『맛스타 CF』. 모두들 군 생활의 복잡한 일정에 쫓겨 시간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참여아래 완성한 작품이라 애착이 크다. 물론 장비 - PDI50 디지털 카메라 1대, 편집용 컴퓨터 1대가 전부 - 나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완성도나 작품성은 다소 떨어질 지 모르지만 그 속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열정과 패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작품이다.

Nemo 그 원대한 꿈을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력이 있다. 그것은 조물주가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창조력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한다. 위계조직이 엄격한 군 생활에서 창조력을 발휘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 Nemo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하여, 장병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고 창조력이 넘치는 군대생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1세기 첨단 공군에게는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상은 우리들의 세상을 그대로 복제한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려주기도 하며,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참으로 멋진 『대화』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Nemo는 과연 군대 안에서, 군 과 군 사이에서, 그리고 군과 사회 사이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이상 아닐까! ⚡

6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6월.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일반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신기한 볼거리로 가득한 두 개의 기획 전시가 열린다. 『일상의 연금술展』과 『미술 밖 미술展』. 이름을 듣고 여러분이 상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호기심일 것이다.

일상의 연금술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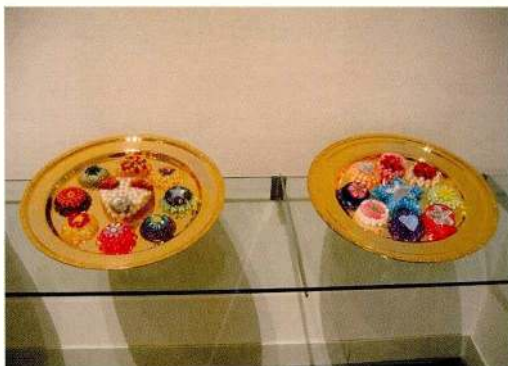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유럽에까지 전해진 고대의 자연학으로서 구리, 납, 주석으로 금이나 은을 만드는 것이 처음 목표였다. 그 이후 점차 발전하여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드는 일까지 그 영역을 넓혔으나,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쇠퇴, 지금은 하나의 미신 같은 존재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2004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다시 태어난 연금술. 이번엔 몽상이나 미신이 아닌, 의미와 형상을 지닌 예술작품으로 우리를 찾는다.

이번전시는 원로에서부터 신진까지 전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23명이 참여하여 작가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 7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최정현 작가는 옷걸이와 플라스틱 삼, 단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사슴을 만드는가 하면 고물상을 뒤져 나온 듯한 다리미와 오토바이 부품으로 콘돌을 만들어 낸다. 옷걸이 두 개로 탄생한 근사한 사슴의 뿔. 뜨거운 것의 상징인 다리미를 머리 삼은 콘돌(작품 이름도 『대가리 열 받은 콘돌』이다) 등... 우리는 작가의 연금술에 놀랄 따름이다.

김범작가의 <라디오모양의 다리미, 다리미모양의 주전자, 주전자모양의 라디오>는 흔히 고정되어있는 사물의 역할과 이미지를 탈피하여 서로 조합과 변형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작품이다. 김홍주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은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플라스틱바구니를 그럴 듯 하게 모아놓아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탈바꿈시켰다.



정소연 - 디저트 좀 드시겠습니까?
(투명실리콘, 각종인조보석, 금장접시)



최정현 - 대가리 열받은 콘돌(다리미, 오토바이 부품들)

김수진작가는 흔히 우리가 짹짹이라고 하는 벨크로를 가지고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외에도 개성 넘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들의 작품들이 초여름 전시장을 달구고 있다.

6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2,000원이다(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미술 밖 미술展 동시 관람가능).

문의전화 02-2188-6000

미술 밖 미술展

꼭 정통 인물수채화나 판화 풍경화, 조각들만이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영화포스터나 애니메이션이 미술관에서 전시될 수 있을까?

현대미술에서 순수와 응용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미술의 형태가 부상하고 있고 대중들도 순수 미술과 상업응용미술의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오래이다. 『미술 밖 미술展』은 순수미술 영역이 아닌 상업사진, CF광고, 애니메이션, 만화 무대미술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다양한 대중문화시각을 체험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편안하고 재미 있는 전시이다.

사진은 우리가 흔히 잡지나 가수 앨범 자켓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눈에 익은 것들도 많다. 상업사진의 참여작가로는 인물사진 촬영으로 유명한 조세현작가나 김종만작가, 효자동 이발사, 아라한 장풍대작전 포스터를 찍은 윤형문작가, 이영애를 모델로 오욕칠정을 나타낸 김용호작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만화 역시 순수와 응용간의 경계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시사만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박재동 작가의 작품에선 순수미술의 조형성과 만화적 특징이 잘 어우러져 있다.

애니메이션도 당당히 이번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애니 매트릭스 감독인 피터 정 의 매트리 큐레이티드, 한국영화대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김문생 감독의 원더풀데이즈 같은 3D애니메이션의 풀버전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 전시를 보고 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미술의 문외한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접해왔던 것들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제 고개를 들어 예술을 즐겨보기 바란다.



조세현- 초상 황신혜 (2000젤라틴 실버프린트)
피터 정 - 매트리큐레이티드 (2003 애니메이션)
권혁 - 장화 흥련 (웹 커뮤니케이션)

6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며, 주말엔 전시에 대한 설명도 들 수 있다.

문의전화 02-2188-6000

견학·정리 : 제2방공포병여단 병장 지인홍

‘우산을 찾아드립니다’



방송작가 함은선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잃어버린 물건 주인 찾아주기』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복잡해지는

일에 끼어 들기 싫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방 송일을 하다보면 유난히 뉴스에 민감해진다. 대체적으로 뉴스가 방송 아이템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다지 좋은 소식의 뉴스는 몇 건 없다. 늘 사건사고로 뉴스는 꼭 차버리는 것이다. 가끔 어르신들이 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였을 것 같다. 몇 년 전 모 카드회사에서 『좋은 소식만 나오는 TV』라는 컨셉으로 나왔던 광고... 그 광고가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말이다. 뉴스의 잔혹이 더 이상 잔혹으로 느껴지지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날들을 무덤덤히 받아들이고 산다는 건... 실은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하다.

근데 며칠 전 아침...

출근을 아주 즐겁게 해주던 사건이 있었다. 때아닌 봄비가 며칠 동안 도시를 강타하던 날.

습기 가득한 전철과 그 안의 사람들은 제각기 짜증스러움을 얼굴에 담고 있었다. 간혹 앞 사람의 우산에 신발이 젖고 옷이 젖고 우산으로 살짝 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있던 비오는 아침...

어서 도착지에 내려 시원한 공기를 마구마구 들이마시고 싶다는 생각,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각 전철역사에 도착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이와 다시금 메워지는 이의 숫자를 헤아리며 그려진 부등호를 그나마 위안 삼으며 출근하던 중이었다.

다음 전철 역사가 그다지 남지 않은, 그래서 "이번 정류장은 어찌고..."하는 방송이 나올 즈음이었다. 내리는 사람들은 내릴 준비에 긴장을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생기는 빈자리를 탐내며 눈을 번득이는 초긴장상태가 계속되던 즈음, 한 아주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우산 가져가요”

긴장 상태의 사람들은 일제히 한 호흡을 멈췄다.

위낙 조용한 전철 안이었고 그분의 목소리가 크기도 했지만,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뻔하게도 이랬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리를 탐내며 앞사람의 동태를 파악하던 아주머니는 앞의 아가씨가 일어나자 껌싸게(?)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선 으레 그렇듯이 살짜꿍 눈을 감으려는 즈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산을 발견한 것이다.

아주머니는 어렵게(?) 차지한 자리를 포기

하고 다시금 껌싸게 일어나서 우산 주인을 찾아 나섰다. 문 앞에 선 젊은 처자들이 제법 많았음에도 아주머니는 일일이 우산을 들이밀었다. 생각보다 우산 주인은 쉬 찾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일제히 그 아주머니에게 길을 터주고 있었다.

그 순간 옷이 젖어서, 공기 순환이 안되어서 짜증스러웠던 이들은 온데간데없고 유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자리에 우산 주인이 없음이 밝혀지고 아주머니는 한동안을 더 그렇게 서서 가야했다.

짧은 순간의 우산 주인 찾기 소동을 지나 전철을 내렸지만... 한동안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각박한 세상의 보통사람』으로 살았던 나

언제부터인가, 나부터도 길가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봐도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였고, 실은 그게 생활이 되었다.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잃어버린 물건 주인 찾아주기』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복잡해지는 일에 끼여들기 싫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그 역(易)의 입장에 서면, 사람들은 너무 모질다는 등... 자기밖에 모르고 산다는 등... 그렇게 툭툭거리는 것이다.

그래... 손해보기 싫었던 나는, 그 동안 내 공화국 안에서 홀로 돌아왔은 외로운 왕이었다.

이제는 슬쩍... 주변을 둘러보자..

혹시 알까? 드라마처럼,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꾸준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소시민의, 소시민에 대한 한국 현대사

효자동 이발사



영화평론가 김지훈



소시민 이발사 성한모, 역사의 언저리에 서서

청와대가 자리한 효자동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는 이발사 성한모(송강호)는 나름대로 숨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개입해 표를 빼돌렸으며, 4·19의 난리 통에는 외아들 낙안이를 얻었고, 5·16 때는 효자동을 가로질러 청와대로 향하는 쿠데타 탱크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 그리고 어느 날 이발소를 찾아온 청와대 경호실장의 눈에 띄어 각하의 전속 이발사가 되기에 이른다. 그때부터 그는 『각하는 곧 국가』라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던 중, 『설마』 하는 사람이 간첩 용의자라는 국가의 말씀을 접한 소시민 한모는 물똥을 싣다며 청얼대는 철없는 아들 낙안이를 간첩 용의자로 신고한다. 낙안이는 고문 후유증으로 앓은뱅이가 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효자동 이발사>에서 성한모는 『소시민』의 전형에 상당히 부합하는 캐릭터이다. 『이발사』라는 직업이 여기에 한몫을 한다. 이발이나 미용과 같은 직업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견 대수롭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장인 기질과 내력이 요구되는 직업인 셈이다. 이런

소 시민이라는 말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와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소시민이란 말은 『선량한』, 『평범한』 등의 뜻으로 쓰인다. 이 말에는 많은 뉘앙스가 있다. 소시민은 빈민과는 다르다. 비록 약간은 궁핍할지언정 그들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과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소시민』이라는 말에 함축된 중요한 의미가 생겨난다. 소시민은 자신의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녀 교육비, 장바구니 물가상승 등 생활의 자잘한 (그러나 중요한) 풍파들에 근심하지만 역사의 커다란 파고로부터는 한 발 떨어져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역사의 격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세상물정과 세태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직업의 특징은 소규모의 자영업이고, 그러기에 자신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소시민의 눈으로 본 한국 현대사

〈효자동 이발사〉는 이 소시민의 눈으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본다. 그의 눈은 민주투사처럼 충혈된 것도 아니고, 독재정권의 하수인처럼 뻔뻔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먼 산을 보는 듯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와대 인근인 효자동이라는 설정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해 준다. 성한모는 직업과 생활에서는 어느 소시민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역사의 격동 언저리에서 거대한 흐름의 파장을 절감한다.

성한모의 울타리에 역사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발 장면이다. 여기서 이발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부각된다. 『중이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적어도 이발 중에는 이발사가 왕』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하의 머리를 손질하는 이 이발사에게도 남모를 고뇌가 있다. 이발사는 모든 종류의 인간들을 고객으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말상대가 되어 준다. 그러나 고객들의 삶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행여나 중대한 비밀이라도 알면 그들의 속은 조용히 까맣게 타 들어갈 것이다.

〈효자동 이발사〉의 역사에 대한 시선은 다소 방관자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선의

속내는 녹록하지 않다. 이발사라는 직업은 『소시민의 삶』에 흐르는 대기의 밀도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역사 속의 개인, 개인이 바라본 역사

영화에서 성한모가 폭력적인 세상을 절감하는 장면은 그의 아들 낙안을 간첩 용의자로 신고했다가 낙안이 가엾은뱅이가 되어 돌아오는 장면이다. 금덩이 같은 외아들이 불구가 된 모습을 보자 그는 반공주의적 공권력을 향해 항거하기보다는 아들의 치료법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그 순간 그는 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순간이 소시민이 역사의 파도에 마멸되는 때다. 마침내 울분을 참지 못한 그는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의 머리를 가위로 자른다. 다소 걱정적이고 급박한 감은 있지만 성한모의 흐느낌은 진한 여운을 남긴다. 이 클라이맥스에서 소시민의 평범함은 우리 삶의 얼굴이 되고, 이발소는 삶의 회로애락과 역사의 회비극이 동거하는 소시민의 공간으로 부상한다. 〈효자동 이발사〉는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와는 다른 눈높이와 눈빛으로 그때 그 시절의 개인과 역사를 돌아보는 작품이다. 머리보다는 가슴에 호소하는 태도는 흡사하지만, 관객에게 울분이나 북받치는 마음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역사 속의 개인, 개인이 바라본 역사를 일깨운다. ㉠



안보현장체험교육을 마치고

제3방공포병여단 중위 황성욱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된 안보현장체험교육. 올해는 특히 전사적지와 산업시설을 중점적으로 견학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기대를 품고 참가하였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에 약간은 걱정스러웠지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첫 날, KAI와 충무공 유적지

대전에서 모인 우리들은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마치고 맨 처음 KAI를 방문하였다.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KF-16 생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훈련기 KT-1 독자 기술 개발, 세계 12번째 초음속 훈련기 T-50 개발의 KAI 등 각종 수식어답게 엄청난 규모의 공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20만평의 대지에 중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은 무주(無柱)공법의 공장은 여타 상식선의 공장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띄고 있었다.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국가방위에 기여한다는 높은 사명감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첨병이란 자부심도 대단하였다.

두 번째로 배를 타고 방문한곳은 한산도 충무공 유적지.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계셨을 때의 진영을 보수·재건한 곳이다. 이 곳의 지형은 한산만이란 곳을 중심으로 남서쪽의 두어포, 남동쪽에 고포라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구가 좁고 안쪽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이러한 지형의 특성을 살려 승리를 일궈냈다



한산도 충무공 유적지

고 하니, 나에겐 아름다운 풍경이 왜군에게겐 지옥같은 곳이었으리라. 나오는 길에 충무공 제단에 향을 피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둘째 날,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옥포조선소, 한려해상국립공원

다음 날 방문한 곳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6·25전쟁 때 유엔군에 잡힌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던 곳으로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간의 유혈사태가 있었던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17만명이 수용되어 있었던 섬이었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자동차로 왕래가 가능하다. 수용소로 들어가는 다리는 또다른 '돌아오지 않는 다리'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그 때의 정황을 모형과 사진으로 전시해 놓고 있다. 새삼 전쟁의 쓰라림이 몸으로 느껴졌다.

오후에 대우조선해양조선소를 방문하였다. 옥포만에 위치한 이곳은 1백 30만평의 대지 위에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는 세계최대 1백 만톤급 선박건조용 제1도크와 900톤 폴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Dock에서 건조되는 배 중 인상 깊었던 배는 LNG저장선이였다. 이 배는 LNG저장을 위한 안전성이 건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안전사고로 인한 폭발시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의 위력과 맘먹기에 웬만한 기술력으론 만들 수 없다고 한다. 그런 배인지라 대당 가격도 1,800억에서 2,000억, 17년 연속 세계최우수 선박선정이 말해 주듯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정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선소를 뒤로하고 한려해상공원을 뱃길로 견학하였다. 장승포에서 유람선을 타고 해안 비경을 따라 동백섬, 사자바위, 외도, 십자동굴, 등대섬을 둘러보는 일정인데,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절경이라고는 하지만 이보단 못하지 않을 까 싶다. 가수 조용필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들으며 동백섬을 지나가니 묘한 기분이 든다. 날씨가 흐려 외도를 가보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등대섬과 십자동굴을 끝으로 3시간의 뱃길을 마감하였다.

마지막 날, 낙안읍성과 광양제철소

이튿날 오전에 방문한 곳은 낙안읍성. 낙안읍성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읍성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된 곳으로 특히 성안에 전통적인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다. 왜구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돌로 쌓은 네모난 마을의 모습.

거제도 옥포조선소



KAI공장

이 마을 중앙엔 선정을 배풀었다는 군수 임경업의 선정비가 있는데, 지금도 그의 영혼이 이마을을 수호한다는 전설이 있어 매년 정월보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마지막 방문지는 광양제철소. 광양만 5백만평의 바다 한가운데 10t트럭 1천만대 분량의 모래와 자갈을 쏟아 부어 만든 이 제철소는 2001년 조강 생산량은 1,580만톤, 단일 제철소로써는 세계 최고의 제철소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철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세계5대 철강생산국이며 철강자급률도 95%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견학을 마치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처음 집합지였던 대전에서 해산하며 돌아오는 길에서 이번 『전사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의 의의를 생각해 보았다. 먼저 이번 교육은 정훈장교뿐만 아니라 정훈지도장교들도 많이 참석하여 같은 공군으로서의 유대를 넓히는 계기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대의 정보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체험식 교육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높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국가를 방위하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으며 이러한 경험을 정신교육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칼의 노래

- 김훈 지음 -



칠전량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함대가 사실상 괴멸당한 후 이순신이 다시 복직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래서 『칼의 노래』는 처절한 복수극이자 투쟁사다.

김훈은 이순신과 늘 함께 다니던 충효(忠孝)라는 봉건적 조미료를 걷어냈다. 그리고 그 달착지근한 조미료가 없는 임진왜란은 피와 배설물,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한편의 지옥도다.

그렇기 때문에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은 웅장하고 장엄한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는 실존주의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왜(倭)군의 전단은 쇄도해오고 명의 군대는 적과 내통하며 임금조차 그의 유명세를 시기한다. 이런 상황이 한 문장당 대여섯 단어라는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김훈의 문체로써 독자에게 더욱 절절히 다가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도층의 책임윤리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문(文)의 복잡함에 대비되는 무(武)의 단순미, 한국문화의 혼미한 정체성 등이 논의된다.

이순신, 그 역사적 오해와 진실

어찌 보면 이순신의 싸움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의 기억에서 거의 잊혀졌다가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진 재발굴 작업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가장 완벽한 영웅은 『전체주의=박정희=이순신』

이라는 일부 세력의 당황스런 논리에 의해 거의 악의에 가득 찬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상,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하고 원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 당시의 당리당락 때문이었다. (둘은 반대파에 속해있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를 위해 엉뚱하게 역사적 영웅을 비하하는 것을 보면 당리당락에 희생된 이순신을 부관참시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플 뿐이다.

요즘 들어 낭설일 것이라고 주장되는 일제 도고제독의 『넬슨과 이순신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예찬론은 1908년 일본에서 발간한 제국국방사론에 등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순신에 관한 거의 신화적인 사례는 조사결과 공인된 사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웅적 행적이 너무도 뛰어난 나머지 오해를 받게 된 것이 아닐까. ☉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작가 소개

김 훈

1948년 서울 출생. 오랫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다. 지은 책으로는 독서 에세이집 [내가 읽은 책과 세상], [선택과 옹호], 여행 산문집[문학기행 1, 2], [풍경과 상처(공저)], [자전적 여행], [원형의 섬 진도], 시론집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밭 벌이의 지겨움], 장편소설[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칼의 노래] 등이 있다. [칼의 노래]로 2001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단편소설 [화장]으로 2004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에



제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6월은 눈부시게 푸르르고 아카시아 꽃향기가 그윽하게 느껴지는 신록의 계절이다. 또한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하순경부터는 돌변기상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찾아진 기상이변, 더욱 주의를 기울일 때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2월과 4월의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 3월에 충청권을 강타한 100년만의 폭설 등 올해 발생한 피해액만 이미 4,000억원이 넘었다. 이뿐만아,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와 루사의 경우 기상청의 역대최고 강풍 기록과 일일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의에 의하면 『기상이변이란 월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의 경우 30년에 1번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이변』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찾아진 기상이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며 장마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6월부터 시작되는 집중호우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약 60%인 700mm 정도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국지적 혹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집중호우는 종종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하루 약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6월말에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6월부터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배수로 및 토사 유실 우려가 있는 곳을 정비하고, 저지대 침수다발지역 사전점검과 함께 지반이 약한 도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시 동반되는 너우의 피해를 받기 쉬운 전주, 변압기, 변전소 등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까지 사전정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병들은 여름철 기온상승과 습도증가로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시기이니 식중독이나 개인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절기로는 보리를 먹게 되고 벼모를 심는다는 망종(芒種)이 5일이며, 하지(夏至)가 21일이다.

6월, 우리의 산하는 푸르름을 더해가고 아카시아 꽃향기에 취해 지저귀는 새소리도 잇을 것 같은 아름다운 계절이다. 농가에서는 보리수확과 모내기가 연이어져 매우 바쁜 때이기도 하다.

우리 공군 장병들도 주어진 업무에 바쁜 때이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 부부』 얘기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든 훈련생활 중에도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 결혼에 골인한 모습이 마냥 부러웠습니다. 저 또한 결혼을 했지만 그들처럼 서로 믿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부족하진 않은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부부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산시 남구 용호2동 정영화

현장탐방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예선대회를 다녀오다』를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릴 적 저도 참가했던 기억이 나네요^^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이재민

『1\$의 칭찬, 10,000\$의 기쁨』을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편집자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석효기

언제나 좋은 정보를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진과 읽을거리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남구 용현2동 한상욱



『어버이날을 맞이하며』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군인이 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날이 많다보니 그 소중함을 더욱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충북 충주시 금가면 차동근

법률상식 『나홀로 소송하기』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선뜻 홀로 소송하기가 망설여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조언과 도움말이 있어,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김주태

그림 이야기 『이제는 걸수 없는 전화』를 가장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짧은 글

과 그림 속에서 그동안 부모님께 소홀했던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모님께 잘하는 딸이 되어야겠습니다.

대구시 동구 검사동 조경희

임영효 장병의 『어버이날을 맞이하며』를 읽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할 때 바로 시작해야 후회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부모님께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 문중현

함은선 작가의 스승에 관한 글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무뚝뚝하고 인기는 없지만 행동으로써 표현하여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 지금도 생각난다고 하니, 참다운 스승입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김지훈

제가 TMO에 근무하면서 여러 정기간행물을 보게 되는데 이중에서 월간『공군』이 가장 잘 꾸미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즐거운 소식들 기대하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창수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 ~ 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31-7, 02) 506-6231-7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영
국
공
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4. 6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다른 그림 찾기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퇴역 항공기들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조영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백명기
-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태숙
- 경북 포항시 북구 김주태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창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최윤석
- 부산시 남구 용호2동 정영화
- 대구시 동구 검사동 조경희
- 충북 충주시 금가면 권순천
- 서울시 종로구 화동 백주하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6월 20일까지

환향녀(還鄉女)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안 정 훈



환향녀는 남성위주사회의 희생양

환향녀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으며 일본과 청나라에 잡혀갔던 여인들이 절개를 잃고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때 불렀던 이름이다. 이들은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았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들은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모두 첩을 얻어 부인을 멀리했다. 환향녀 중에는 양반의 처도 많았지만 이들이 어렵게 돌아왔더라도 치욕을 감수하며 살아야했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청군에게 끌려갔던 영의정 장유의 며느리는 실절했다는 이유로 시부모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했다. 인조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훗날 시부모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끝내 이혼을 허락받아 내쫓았다.

암울한 시대의 산물인 환향녀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을 뿐 어디에도 설자리가 없는 남성위주사회의 희생양이었다.

실패한 역사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랑케는 말하기를 『상황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이 되풀이된다』고 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고 말았다. 전쟁이 여자들 못나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여자들 때문인가? 잘난 남성들의 안일한 정치와 국방이 전쟁을 불렀고 패배를 자초한 것이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자와 아이들이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고 1천여 회의 외침을 받았음에도 끈끈하게 버텨왔음을 자랑으로 삼는다. 그게 자랑인가?

그런 나약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당한게 누구인가?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다. 실패한 역사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6·25가 끝난 지 불과 반세기. 종전이 아니고 엄연히 포화가 일시 멈춘 『정전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태평성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한반도에서 이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역사적 비극, 6·25

6·25전쟁은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18만 명의 생명을 잃었다. 미군의 경우는 32만 5천명의 병력이 참전했고 사망 3만명 부상 10만명의 희생을 치루었다. 북한군은 52만명 중공군은 90만명의 병력을 잃었다. 전쟁기간 중 8만 5천명의 남한 지도급인사들이 납북됐으며, 300만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 전쟁고아와 미망인의 처참한 절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진정한 호국보훈의 의미

비극은 우리의 시대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다음 세대까지 비극을 대물림하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의 누이와 딸들이 희생양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다시는 우리의 역사에서 환향녀의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호국보훈은 조국을 지키다 산화하신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 강산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비장한 다짐의 첫 걸음은 바로 다시는 이 땅에 환향녀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 원고 : 이달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우리 동아리 최고,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go.kr, (인트라넷) ksh0450@af.mil

문의 02)506-6233, 호)6233



공군의 최신소식 **News Letter** 에서 만나보세요.

force Newsletter Airforce Newsletter Airforce

공군에서는 지난 해 6월 5일 주간 인터넷 소식지 「공군 뉴스레터」를 창간, 공군에 대한 재밌는 소식과 알찬 정보를 네티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공군소식, 공군탐방, 테마포토 등 즐거운 정보가 매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공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 뉴스레터 보는 법 :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 → 뉴스레터 메뉴 클릭!(수신 신청 가능)



매주 **목요일**
알찬소식 담은 공군 **뉴스레터**가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이고
저 하늘에 날으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 이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모을숙 -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중에서...

